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가발 시범회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지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립때는 약정금리로'
•교육자금 주택자금 영조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무료문의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9월 1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어려운 수행을 능히 참아내고 행하면 부처님같이 존경받는다. 〈발심수행장〉

법회 안내

철보사 (02)732-7498
거사불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낙산 원각사 (02)742-008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초하부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수계법회 매월 1일 오전12시
금륜정사 (0351)866-0849
초하부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대전 대승심인당(042)282-5918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자비불사법회 매주 일 오후7시
광주 문빈정사(062)222-2202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5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대구 보리원 (053)582-7611
가족법회 매월 마지막 일 오전11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안동 대원사 (0571)858-263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매주 화 저녁7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군산 흥천사 (0645)445-3769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호국연화사 (0356)65-0686
수요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일요정기법회 일 오전10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 추석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소쩍새 마을. 원생들은 라면을 먹으며 '그래도 추석날은 누군가 장난감을 들고 오겠지' 하는 기다림을 버리지 않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상처받은 '소쩍새' 슬픈 한가위

자비의 손길 끊겨…노보살 한명이 136명 뒷바라지

"새 옷 입고 송편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추석에는 예쁜 새옷 입고 송편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얼마전에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먹을 것이 많았는데 지난 달부터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올해 국민학교에 입학한 종섭이가 라면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어치우며 하는 말이다. 요즈음 소쩍새 마을에는 후원금이 뚝 끊겼을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떠나버려 종섭이의 소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쩍새 마을에는 종섭이를 비롯 지체장애인 18명, 정신박약아 57명등 모두 1백36명이 둥지를 틀고 있다. 가짜승려 일행의 파렴치한 행위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재갈거리던 원생들의 목소리 마저 사라져 소쩍새 둥지는 추석을 앞두고 더욱 쓸쓸하다.

키작은 민우는 혼자 족우로 불어난 개울가에서 마냥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

60이 넘은 노보살 혼자 1백36명 대가족의 음식을 마련해야 해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는 일이 많다는 것. 지난 장마에는 9개동의 비닐 움막에 비가 새 잠자리조차 엉망이다.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원생들은 자주 동구밖을 서성거린다. 금방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탄 버스가 들어와 맛있는 음식, 장난감, 과자등의 선물을 줄 것만 같기 때문이다.

명절때만 되면 소쩍새 마을은 전국 각 사찰이나 사회단체에서 찾아오는 후원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후원자 가족들이 찾아와 선물꾸러미를 나눠주고 윷놀이, 제기차기 등 재미있는 민속놀이를 함께 해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를 이루 었는데… 소쩍새 가족들은 이번 추석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란 기대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마침 지난 2일 중앙승가대학인스님들이 추석을 앞두고 찾아와 원생들에게 이발을 해주고 목욕을 시켜주었다. 돌보는 사람이 없어 외죄죄했던 원생들은 금방 뽀얘졌으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기란 역부족인지 쓸쓸한 얼굴들이다.

소쩍새 가족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있는 중앙승가대학 법종스님은 "자비손길을 사이비 승이 농락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지만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라며 "어서빨리 이 불상하고 오갈데 없는 원생들의 웃음을 되찾아 주도록 자비의 행렬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빗나간 어른들로 인해 한바탕 회오리가 지나간 소쩍새 마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눈만 끔벅거리며 추석을 맞고 있다.

원주=김종근 기자

'염주알로 살생' 청소기 광고 "교계 충격" 10면
추석 연휴 금주 12면·부록 타브로이드 4면 발행

관악청소년회관 운영체 선정 '의혹'

투표 관례무시 지명…교계 재검토 요구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는 단체가 관악청소년회관 운영체로 선정, 의혹이 일고 있다.

조계종 총무부장 법타스님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모집 조건과 자격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단법인 온터두레회(회장 이재우)에게 관악청소년회관 운영권이 주어진 과정을 살펴 볼때 민선구청장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작지않게 작용했고, 따라서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법타스님은 또한 "관악구청장인 진진형씨(선거당시 민주당 공천) 취임이후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및 추진상황은 베일에 가려진 채 지난 8월초 구청장 주관하 국장급들만 참여 전격적으로 운영권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구청의 국장급들과 구의회의원들, 구관내 관련 전문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관악청소년회관의 경우 구두상으로 지시 결정됐다"는 것.

법타스님은 "청소년회관의 운영권자 선정과정상에 의혹이 있으니 재검토해달라는 공문을 관악구와 서울시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온터 두레회의 이재우회장은 YWCA회장을 역임하는 등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같은 기독교도인 진진형 관악구청장과는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훼손 개발 정책 결사 반대"

부산범시민 대책위…가두시위등 저지운동

범어사 앞 고층아파트 건립을 비롯하여 최근 부산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각종 개발정책에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어지고 있다.

'금정산 경동아파트 건립저지위원회' '백양산 살리기 추진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자연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2시 부산역광장에서 2천여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제1차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체적 위기를 맞은 부산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전시민이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경의대회에서 13개 단체 대책위원장들은 당국의 △금정산, 백양산 아파트 건립 △황령산 위락단지 조성 △오륙도, 신선대, 남천만 매립 등 부산시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비난하면서 친환경정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끝낸 시민들은 부산시청까지 가두시위 행진을 벌여 부산시 주택국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했으나 이 과정에서 차도로 행진하려는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병력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이에앞서 지난 1일 범어사에서 개최된 '범청년승가대회'에서는 전국의 학인승려 1백여명이 동참해 "범어사 앞 경동아파트 건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가함을 재천명하며 목숨을 건 용맹심으로 지지대열의 선두에 설 것"을 표방하고 금정구청까지 만장시위 행진을 벌인뒤 윤석천 금정구청장에 항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인터뷰 4면)

주제 '관용과 평화' 종교지도자 세미나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문화체육부가 공동주최하는 '95 종교지도자 세미나'가 9월14일, 15일 양일간 서울 '한국의 집'과 경기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개최된다. '관용과 민족공동체 평화' 주제하에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남북간 종교교류문제 △종교의 사회참여 △종교간 갈등 및 치유 △국민정신 계도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각 종단 관계자 1백여명이 참가한다.

목어

"엄마 내 신…."

학교에 가려고 마루를 내려서는 아이의 외침에 어머니는 아궁이 앞에서 아들의 신을 볼에 대본다.

어머니의 사랑을 진하게 전하는 한국 전력의 뽀 캠페인 TV장면이다.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아버지)라 부릅니다'가 잔잔한 감동의 파문을 일으키면서 '뽀'를 주제로 한 광고가 요즘 눈에 뜨일 정도로 늘고 있다. 특히 추석을 맞아 제약회사들은 다투어 부모님과 어머니를 내세운 광고를 보여주고있다.

'이젠 근력도 부치실텐데… 부모님 건강이 저희들 건강이죠' '고향에 들고간 선물보다 갖고오는게 훨씬 많은 귀경길… 자식들 챙기느라 고생만 하신 어머니… 속깊은 사랑뒤엔 속깊은 아픔이 있다.'

'도시생활로 늘 멀어져 사는 자녀들… 행여 바쁜 일 있을새라… "바쁘면 오지말아라"… 그 깊은 뜻을 어찌 모르겠습니다까.'

'뽀' 광고가 부모님과 고향을 되새기게 하는가 하면, 한쪽에선 '현대판 고려장'이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다.

파멸의 문앞에 선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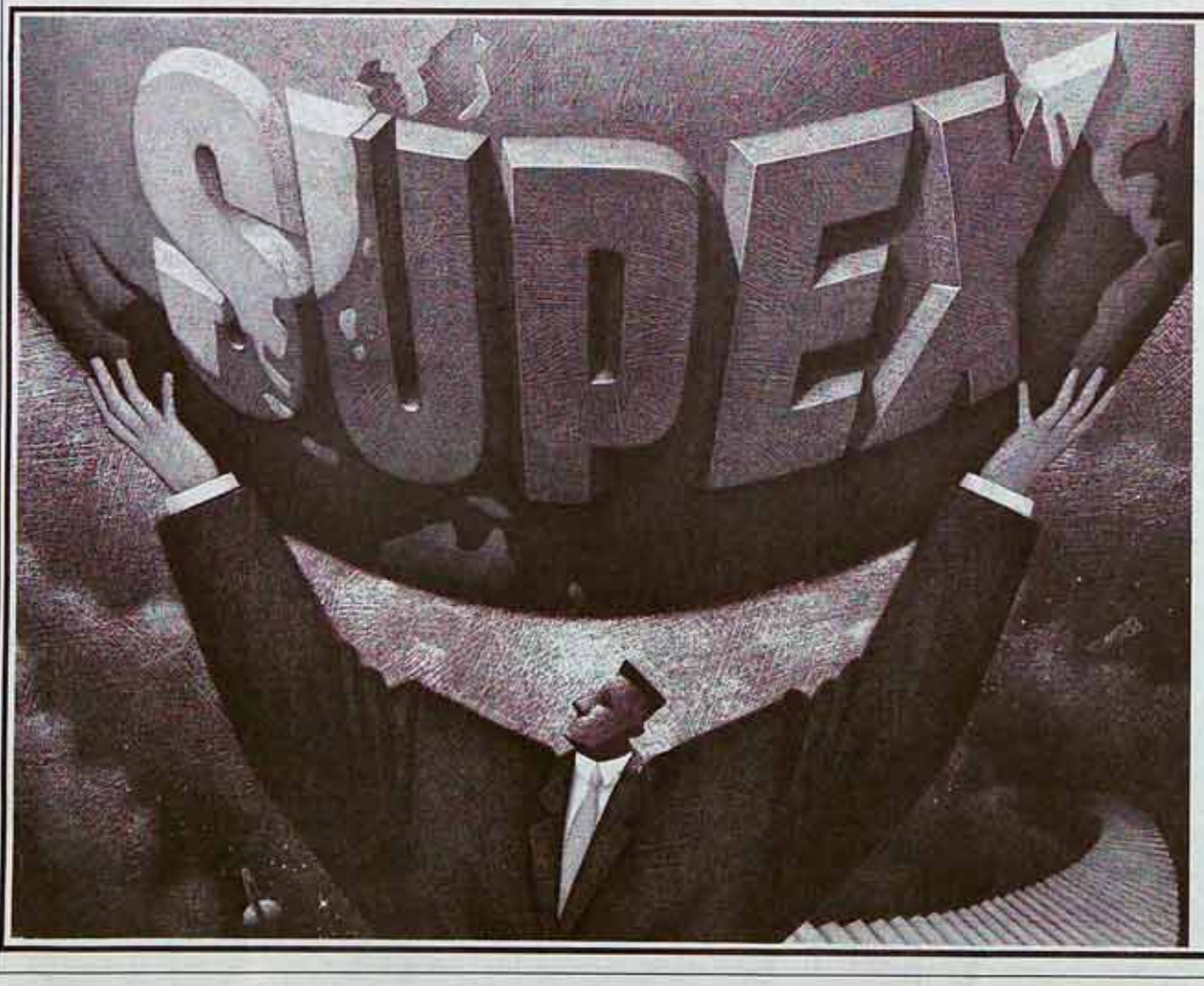
사장 아들을 두고도 당고개 관자촌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있고, 아예 호적에서 지워진 노인도 있다니…. 이렇게 버려진 노인들의 수는 시립 영보자애원에만 1천여명, 탑골·장충등 서울소재 4개 공원에서 배회하는 노인만도 하루 1천5백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탯줄이 이어져 있던 자신의 고향을 저버린 이들에게 꼭 들려주고픈 말이 있다.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요, 불효한 죄를 범한 사람은 자기도 불효한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한마디 더 있다.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 늙어 쇠약한 부모는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는 파멸의 분이다."

〈숫타니파타〉의 말씀이다.



SUPEX
SUPER EXCELLENT

선경의
세계화전략은
SUPEX추구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세계가 보호막 없는 단일 시장으로 바뀌고
세계 각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합니다.
선경은 이러한 시대를 앞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수펙스를 추구해왔습니다.

수펙스(SUPER EXCELLENT 수준)추구 —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선경의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

사 설

'불교 청소년 해' 선포 그 이후…

우리들은 청소년을 일컬어 '미래의 척도'라는 표현을 즐겨쓴다. '분명 청소년은 그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그들이 건전한 이성과 감성의 소유자로 성장할 때 밝고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이하 포교원)에서는 불기 2540년인 내년을 '청소년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차제에 청소년 포교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고, 적합한 이론 정립과 자료를 개발하여 민족문화의 창달과 인류사회의 공영에 이바지할 청소년 육성에 앞장서겠다는 선언이다.

포교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조계종이 종단의 중점사업으로 포교·역경·교육을 강조했지만 청소년 포교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종단 차원에서 청소년 문제를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부서나 기관도 없었으며, 그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전무했다. 이런 점은 불교를 신앙하는 연령층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젊을수록 신도가 적다는 통계조사에서도 역력히 증명되고 있다.

포교원은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과성 행사가 아닌 체계적이고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즉 종단 안의 청소년 문제 전문가, 전국교법사단,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가칭 '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어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전국적인 청소년 포교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칭 '한국화랑단연맹'을 결성하여 전국 각 중·고등학교와 불교학생회와 전국 사암의 불교학생회를 통합하여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이러한 작업들이 연말 안에 골격을 갖추게 되리라 전망한다. 더구나 교육개혁과 함께 예상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변화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불교계의 대응을 요구하는 만큼 시일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개혁종단 이후 포교원에서 벌이고 있는 활발한 움직임에 거듭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일과성 행사나 자아전시적 발표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 포교를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하기 위해 전국 조직의 가칭 한국화랑단연맹을 결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규모에 걸맞는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종단의 사활을 걸고 종책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종단 차원에서 자금을 염출하고 본말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화랑단의 회장단에는 덕망과 신심을 갖추고 청소년 포교를 통해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경제력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포교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청소년 포교에 힘쓰는 지도자들을 관리하고 행정적 뒷바라지를 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개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순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앞서야 한다.

불교계는 모든 면에서 인재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가능한한 사람을 포용해야 하며 기우에 불과하겠지만 스님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승속이 손에 손을 잡고 일불제자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포교는 한국불교 최대의 불사이다. 이 불사가 안되면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이 꺼진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불사에 동참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너 나 없이 기꺼이 동참하자.

현대만평

박구원



생각만 해도…

열린마당

고속철도 경주 통과

나의 의견—진 홍 섭 前 이화여대 교수



나는 이미 '경주는 중환자'라는 논지의 논문을 통해 경주 개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 경주는 중환자다. 그간의 개발만으로도 숨통이 끊길 지경인 경주에 또 다시 고속철도가 지나가고 경마장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의 정신문화가 숨쉬고 있는 경주를 완전히 죽이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온국민을 대상으로 '경주 회생시키기 운동'이 펼쳐져야 할 마당에서 우리는 또 다시 경주고속철도 관통문제로 정부의 유관부처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 보고 있다.

질식할 것만 같은 것은 경주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들일 것 같다.

경주를 우회하든, 지하로 통과하든, 관통하든 경주 지역에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민자당에서 마련한 중재안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본다. 애초에 얘기거리가 아닌 것을 갖고 우리는 3년이나 시시비비해 왔다. 그만큼 '개발과 보존'사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뜻일 것이다. 경주지역인들은 '문화재 보호 때문에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문화재 때문'이란 이유는 말이 안된다. 오히려 그 문화재의 터전에 살아가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타지역에 비해 개발이 저조하다는 경주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은 정부가 진작부터 보상했어야 한다. 문명의 이기를 들여놓고 관광이나 레저시설을 확충하는 개발만이 개발은 아니다.

가장 경주다운 경주 만들기가 무엇인지 정부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그 고심의 가장 급한 불인 고속철도 문제도 경주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되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랑의 잣대를 지녀야 할 것이다.

우회도 관통도 古都 훼손은 마찬가지

"관광·레저시설 아닌 지역발전 대책을"

'찬성·반대·절충' 줄다리기 3년

'천년 고도(古都) 경주를 침단문명의 고속철마가 달려야만 하는가'

3년여동안 맞서 온 고속철도 경주 통과 문제가 최근 둔체부의 '우회론' 제시로 다시 달아 오르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 31일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10월 21일 허용한 경부고속철도 경주시 통과 구간내 유적발굴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청와대도 건교부에 '경주 고도보존에 만전을 기해 문화재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문체부는 발굴허가 취소와 관련 유적파괴를 염려해온 학계의 의견을 수용 "공단측의 노선설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우회론을 내세웠다.

문체부의 이같은 입장이 알려지자 각 언론매체들은 문체부의 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여론을 거세게 몰아가 '고도사랑'의 국민적 정서를 이끌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자국의 고도에 개발바람을 불어넣는 것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일'이란 지적도 굉굉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다음날인 지난 1일 '노선을 변경할 경우 전체 공정에 차질을 빚는다'며 예정대로 공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선 수정등으로 공사차질이 빚어질 경우 차량및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GEC 알스톰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

문체부와 건교부의 의견마찰과 관련 민자당은 지난 3일 절충안을 내놓고 중재에 나섰다. 절충안 골격은 고속철도 본선이 경주를 통과하지 않고 대구~경주간 철도를 복선화하여 전철화한다는 것. 즉 대구~부산간 직선의 복선화 안을 내놓은 민자당은 대구~경주간 전철의 신설과 경주관광사업비에 우회노선건설비용을 쓴다는 것이다.

이미 92년 6월부터 논란이 되어 온 고속철도 경주 통과 문제는 교계에서도 여론이 비등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 했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하로 경주를 통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또 지난 3월 18일에는 한국고고학회, 한국미술학회 등 국내 16개 학회가 경주 통과 반대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고속철도 경주통과 반대와 경마장 외곽지 이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던 이들 학회의 세미나는 경주지역 개발을 지지하는 일부 지역민들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학계 '반대' 건교부·지역민 '강행'

문체부 '우회론' 민자당 '절충안'

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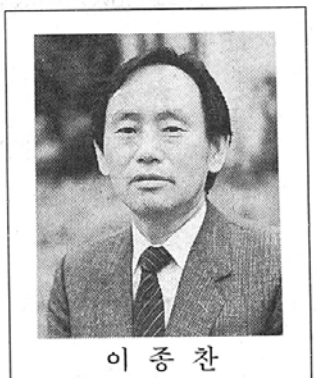
보름달에 비친 우리의 자화상

사람살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변 환경에 의하여 그 삶의 방식이 결정되었고 같은 사람들끼리 부족을 형성하게 되어 그것을 일러 민족이라 불러 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이란 한 묶음 아래에는 같은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이같은 문화를 민족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삶의 방식이나 생각을 유지함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을 주는 자연은 크게는 하늘과 땅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작게는 한 마을이라는 공동체까지 다양하다. 하늘의 해와 달이 가려지고 드러나는 변화에 의하여 땅의 변화가 일게 되니 해의 있고 없음이 밤낮의 어둠과 밝음을 나타내고 해 비침의 길고 짧음이 땅의 계절을 형성하게 된다.

사람의 삶은 이 하루의 밤낮과 한 해의 네 계절에 따라 여러 형태나 의미를 부여해 왔다. 한 해의 바뀜이나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의미의 부여나 그에 따른 풍습의 여러 양식을 일러 세시풍속이라 하여 햇수 바뀜의 길이만큼이나 전승되어 온 것이 민속명절이라 불려 왔다.

하루의 단위, 네 계절의 분기점, 한 해 일년의 변화는 아무래도 태양인 햇살의 길이나 변화에 의해 정해질 수 밖에 없으나 30일을 단위로 하는 1개월의 구분은 달빛의 밝음과 어둠으로 규정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한 달을 보름으로 나누어 달의 밝음으로 척도를 삼음이 역시 운치있는 일이다. 한 해의 단위인 설날은 태양력이 아닌 음력으로 함이 어딘가 모르게 명절답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이 종 찬
〈동국대 교수〉

이제 또 어김없이 중추절이 찾아왔다. 윤괄월의 추석이라 예년보다 20여일이나 빨리 찾아 든 명절이지만 벌써 아침 저녁 바람에는 가을의 냄새가 짙다. 이 역시 달의 뜨고 짐에 세월의 잣대를 맞췄던 동양인의 지혜가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뇌물주어야 일 잘 되나

어쨌든 추석은 찾아왔고 한가위 보름달은 창천에 두둥실 떠 올랐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둥근 달을 보며 우리는 부끄러웠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졸지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저 둥근달은 얼마나 비통한 현실의 거울이겠는가. 총체적 부실의 시대에 떠 오르는 저 달은 우리들의 오늘을 부끄럽게 비추는 거울인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 그 뿐인가. 온 국민이 들뜬 마음으로 표를 던져 뽑은 지역 행정의 대표자 가운데 상당수가 선거부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듣기조차 얼굴 뜨거워 지는 보도가 아닐 수 없다. 교육위원 자리를 두고 수 많은 뇌물들이 오갔다는 소식 역시 우리네의 서글픈 자화상으로 보름달을 무색케 하고 있으니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는 축제분위기에 뿌려지는 '찬물'일 뿐이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가. 정법(正法)은 불편하고 사법(邪法)은 편하다는 논리가 온 나라에 만연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사법의 중독자가 아닐 수 없다. 뇌물이 끼어야 일이 잘 되고 청렴한 마음으로 하는 일은 그르친다는 착각은 어떤 약으로 치유되는 병인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송편을 나눠먹는 마음

최근 한국을 다녀간 태국의 청백리 잠룡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법을 지킨 점 때문이다. 인간적 도리로 일을 하는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는데서 그는 청백리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것이다.

보름달 아래 온통 부끄러운 사람들의 나라를 다녀간 이국의 지도자에게서 우리는 '정법은 아름답다'는 지당한 이치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올 추석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또 하나의 아픔이 있다. 그것은 폭우로 애써 가꾼 농작물을 잃어버린 이웃들이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구가해야 할 날에 흙탕물이 휩쓸고 간 허망한 들판을 바라보아야 할 그들의 망연자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다짐해야 한다. 이제는 더이상의 사고도 재해도 없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총체적 부실과 총체적 부패라는 부끄러운 이름들을 저 보름달의 밝은 빛에 녹여 버리고 천년전 신라인이 꿈꿨던 불국정토의 밝은 세상 가꾸기에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차례상 앞에서, 성묘길에서, 사찰에서 우리는 오늘의 부실을 참회하고 내일의 건강사회를 발원해야 할 것이다. 해와 달을 바라보며 삶의 지혜를 캤던 조상님들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 용서와 격려의 눈길을 보내 줄 것을 믿으며.

아직 우리에게는 보다 큰 희망이 있다. 둥근달이 떠 오르는 추석이 있고 부모님의 포근한 품을 찾아가는 귀성행렬의 정성이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남겨진 아름다운 삶의 양식들을 내일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더러운 것은 씻어내면 된다. 문제는 두번다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것일 뿐이다.

저 둥근 달 아래 반쪽달로 상징될 수 있는 송편을 먹는 할아버지나 손자나 모두 나머지 반쪽은 남을 위한 마음으로 채워 추석날 밤의 달처럼 둥근 마음을 갖자.

현해탄을 건너간 불상과 경전이 남긴—
일본속의 한국불교
비디오 출시

무지의 땅 일본에 불법을 전하고 비조사, 사천왕사, 법륭사를 조성하였으며 일본국보1호인 미륵반가사유상을 만든 백제의 도래인은 누구인가? 20만개 이상의 사찰을 가지고 있는 일본불교 1,400년 그 일본속의 한국불교 — 감춰진 비밀은 무엇인가?

■ 제1부 - 머나먼 아스카
• 현해탄을 건너간 불상과 경전은 어디로?
• 아스카의 문화를 꽃 피우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 제2부 - 도래인의 삼결
• 일본국보1호인 미륵반가사유상의 비밀
• 법륭사에 안치된 백제 관음상은 과연 누구의 작품인가?

■ 제3부 - 불국의 땅 일본
• 1일 2만명이 참배하는 동대사의 대불전 비로자나 부처의 신비는?
• 민중불교 선구자이며 민중 교화 사업에 앞장 선 행기스님은 누구인가?









1인당 평균소득 3만불, 1인당 평균 2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
그들은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살던 행기스님을 과연 알고 있는가?
열도곳곳에 살아숨쉬는 한국불교의 찬연한 흔적…

btn 불교TV 32
■판 매 원 : 불교영상사업단
■구입문의 : TEL. (02)715-0032
■소비자가 : 55,000원(부가세 포함)
5대 광역시, 각도별 1개지사 모집중

"불은 모든 형상세계의 근원"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㉔



◇자연의 물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태양이다.

태양은 생명체에 산소·당분등 공급
소화·흡수·성장력은 몸속 불의 작용

불의 생태계

부처님은 불을 어떻게 보았을까? 중부아함경의 상적유대경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벗들이여, 무엇이 불의 세계인가? 내부의 불의 세계와 외부의 불의 세계가 있다. 벗이여, 무엇이 내부의 불의 세계인가? 몸안에 개체적으로 존재하며, 불이나 불과 같은 것, 그것에 의해 존재하는 것, 예를 들어, 그것으로서 열이 생겨나고, 그것으로서 늙으며, 그것으로서 연소되고, 그것으로서 삼키고 마시고 씹고 맛보는 것, 올바로 변화시키는 것, 그 밖에 몸안에 개체적으로 존재하며, 불과 같은 것,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벗들이여, 이것이 내부의 불의 세계라고 불리운다. 이러한 내부의 불의 세계와 외부의 불의 세계를 불의 세계라고 부른다."

따라서 불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세계의 에너지와 외부세계의 에너지를 뜻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불에 관한 아주 놀라운 부처님의 통찰을 반영하는 것이다.

외부세계의 불 가운데 자연의 불은 다른 생태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생명체의 활동에 필요한 청정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부처님은 기세경에서 불의 대신이 "불의 세계안에는 땅, 물, 바람의 세계가 없다"라는 나쁜 생각을 일으켰을 때, 부처님은 그를 질책하여 "대신이여, 그대는 이제 그와같은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왜냐하면 이 불의 세계 안에는 실제로 모든 땅, 불, 바람의 세계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불을 측정하는 것은 온도나 에너지의 양으로 측정한다. 만약에 땅, 물, 불, 바람의 생명현상을 세계에서 이러한 불의 에너지가 없는 세계는 상상할 수 없다. 바람의 세계에 속하는 수증기를 냉각하면 물이 되고, 더욱 냉각하여 에너지를 줄여버리면 땅의 세계에 소속되는 얼음이 된다. 이처럼 온도나 에너지에 따라 물질의 상태가 변화된다. 뿐만 아니라 나무가 불타오를 때는 나무 속에 있는 광물질의 땅과 액체 연료인 물의 성분과 바람의 요소인 산소와 반응하여 불타오른다. 그러나 생명현상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존재하지 않지만, 화산지대의 끓는 유황물 속에도 생명체는 존재하고 극지방의 결빙속에도 생명체는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땅 1g과 물 1cc 속에도 수억의 미시적 생명체들이 살고있다.

이러한 자연의 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며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것이 태양열이다. 태양열은 지상에 도래하여 모든 생태계를 생성·유지시키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햇빛은 지구상에 도달하여 녹색의 엽록소를 가진 식물과 물(H_2O)과 공기중의 탄소(Co_2)와 반응하여 당분과 산소(O_2)를 만들어 내는 광합성 작용을 일으킨다. 이 광합성이야말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text{물} + \text{탄소}(Co_2) \xrightarrow[\text{햇 빛}]{\text{엽록소}} \text{산소}(O_2) + \text{당분}$$

동물은 살기위한 에너지를 햇빛을 받아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식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에너지를 조달받아 생활한다. 그리고 동식물이 죽었을 때에는 곰팡이나 미생물들이 동일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들을 물과 탄산가스와 미네랄등으로 분화시킨다.

우리 몸 안에서의 내부의 불인 소화·흡수·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도 역시 광합성된 에너지의 저장물인 음식이 효소에 의해 분해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같이 자연에서의 외부의 불과 내부의 불은 순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불교대 교수〉

신행수첩

충효·예의범절 배운다
대구 관음사 무료한문교실

한문교육을 통해 세계화를 지향함은 물론 보다 돈독한 불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이 여기저기서 활발하다.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가 이런 취지로 오는 17일부터 '무료 한문교실'을 연다.

어린이반과 중·고등부반으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한문교실의 주교재는 '사자소학'. 사자소학은 충효사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예의범절과 친구간에 지켜야 할 신의, 삶의 지혜를 가득담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 자라나는 우리 동량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버음의 길잡이로써 손색이 없다.

강의는 영남불교대 교수 4분이 번갈아 가면서 재미있는 얘기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어서 알찬 배움터가 될 것이다.

또 관음사는 한문교실 뒤에 풍물패와 기타교실을 계속해 열어 공부뒤의 취미생활도 하도록 돕고 있어 신나는 신행활동을 할 수 있다. 강의는 매주일 오전9시30분(어린이반), 오후2시(중·고등부)

(053)474-8228

불국토 가꾸는 자비심
자원봉사시민대학 열어

무심코 바라보기만 하던 텔레비전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하는 일, 우리주변의 환경을 두팔 걷어부치고 지키는 일도 사찰에서 기도하는 것 만큼이나 꼭 필요한 일이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을 이끌어 줄 제3기 자원봉사시민대학을 열었다.

방송모니터교육·자비수지침·불교경전교육 등 10개 분야별로 개설된 강좌는 우리 불자들의 삶을 보다 튼실하게 엮어주는 소중한 인연의 자리가 될 것이다. (02)723-6258

김삿갓 머물던 용장사로
부산불교교육원 문화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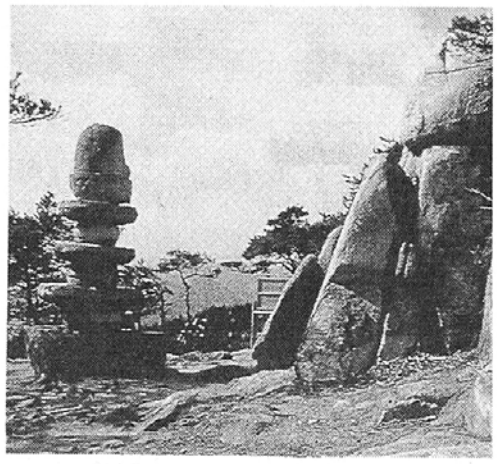
신라천년의 고도 경주는 수많은 유물·유적을 간직하고 있어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부산불교교육원은 17일 경주일대의 불교문화재와 유적지를 둘러보는 '우리문화기행'을 실시한다.

이번에 주로 둘러보는 곳은 용장골. 경주군 내남면 용장사는 말년에 승려가 된 금오신화를 쓴 김시습이 기거한 곳으로 석불좌상과 삼층석탑, 마애여래좌상 등 보물이 산재해 있다.

특히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수려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마애여래좌상은 나발이 선명한 머리와 평행선 음각이 절묘함을 자아낸다.

또 자연석을 지대석으로 이용한 삼층석탑은 자연지형을 이용해 용장사 주위 어느 계곡에서나 볼 수 있도록 올려져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경주군 내남면 소재 용장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민족항일기에 이 계곡을 발굴조사할 때 용장사라고 쓴 기와조각이 발견되어 그 존재가 확인됐다.

이밖에도 이번 문화기행에서는 삼릉골 마애불과 경주 남산의 삼존불을 비롯한 많은 불교유적을 만날 수 있다.

(051)466-4080

부처님 마음 만나보세요
조계사 기초교리강좌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연 어떠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셨을까? 초심자에게 있어 어김없이 다가오는 궁금증이다.

시원한 바람이 옷깃을 단정히 여미게 하는 계절. 초심자를 위한 기초교리강좌가 조계사에서 개설됐다.

기초교리를 신앙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 누구 앞에서나 자신있게 불자임을 밝힐 수 있는 자랑스런 불자로서의 기량을 닦아 보자.

오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주·야간으로 3개월간 운영되는 조계사 기초교리 강좌는 초심자에게 바른 불교이해와 그를 통한 올곧은 신앙심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720-1390

청소년 정신건강 푸르게
약물남용예방운동

부처님 가르침인 5계는 참신행의 근본이며 불자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생활속의 실천행이다. 특히, 불음주계는 비단 술뿐만이 아닌 마약이나 약물남용을 금하고 있다.

청소년교화연합회 대구·경북지부는 17일 대구백화점에서 대구역광장까지 약물남용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약물에 대한 지식전달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용 책받침과 전단등이 배포될 예정이다. 건강한 청소년이 만드는 건전한 사회건설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할 때다.

위 캠페인에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053)741-1441

'95 신행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회사원인 조소영씨(26)는 집안 어른들이 독실한 불자인 탓으로 자신도 불교신자라고 스스로 여기고는 있지만 절에 가 법회를 보는 것은 겨우 "일년에 한두번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나마 일년에 한두번 찾는 법회때마다 '매주 법회에 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다짐을 해 보지만 할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

도심에서 포교당을 꾸려가고 계시는 한 스님은 "포교를 위한 방법으로 재일 외에 주간별 정기법회를 개설하고 있다. 일요법회, 평일 주·야간 법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이 예전에 비하여 비교적 늘긴 했지만 아직 매주 법회에 참석하려는 불자들의 신앙생활 의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정기적으로 매주 법회에 참석하는 청년불자들의 수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금주의 주제
매주법회 참석

'나는 불자' 신심 새롭게 다져
곳곳에 도심 포교당…법회 참석 쉬워져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아무리 좋은 이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뜻도 이룩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70년대 후반부터 산중불교를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성화 되면서 도심포교당이 급속히 늘어나고 규모면에서도 대형화돼 왔다. 집 근처 곳곳에 포교당이나 사찰이 생기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불자들이 절을 찾아 법회를 보기가 훨씬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불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것은 불자들의 생활 기본윤리이자 불자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행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전개되면서 우리 스스로 진정한 생활불교를 실현해 가는 것이다.

사찰에 적을 두었다고 모두 불자인 것은 아니다. 매주 법회에 나가 생활불교, 실천불교가 몸에 배도록 해야 할 것이며, 거기서 불자의 삶을 꾸려낼 수 있는 가르침을 익힐때 참불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백화도량(상임법사 김호성)이 오는 16, 17일 1박2일간 불교조형예술연구소 이기선소장과 함께 영주·안동지역 성지순례를 떠난다.

현장강의로 부석사 봉정사 제비원 등을 답사하는 이번 일정은 신라 문무왕 16년(676) 의상조사에 의해 창건된 고찰 부석사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돼 성지순례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고려 정종 7년(1041) 원융(圓融)국사에 의해 중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영풍 부석사는 비록 본산(本山)은 아니나 전국에서 열 손가락에 꼽히는 명찰로서 창건 때부터 고려대에

무량수전·극락전은 最古 목조건물
백화도량 영주·안동지역 성지 순례

결친 생생한 발자취를 보여주는 유물이 수두룩하다.

또한 안동 봉정사도 부석사 무량수전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로 알려진 극락전(국보 제15호)을 비롯, 보물 제55호 대웅전, 보물 제448호 화엄강당, 보물 제449호 고금당(古今堂) 등의 값진 성보를 보존하고 있는 전국 유수의 고찰이다.

특히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은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로 유명하며, 인도 간다라식 건축양식의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층 8각지붕의 주심포(株心包)건물로서 지주(支柱)의 배흘림이 급한 것이 특색이다.

(02)929-0929

생활속의 불교 ㉔

내가 나에게, 나를 위해 베푼 보시

부처님께서는 자(慈)·비(悲)·희(喜)·사(捨)의 사무량심을 가르치셨다.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자비희사의 정신을 으뜸 가는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량심은 한 마디로 나와 남, 나와 상대 사이에 드리워진 경계선을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생명을 지닌 모든 이여! 행복하고 평안하라.'한다면 그것은 자심(慈心)이 된다.

또 남의 고통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이 사라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비심(悲心)이 된다.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처럼 여기면 희(喜)요, 편견·분별을 여의고 둘 아니게 보면 사(捨)이다.

고로 자비희사는 함께 나눔, 함께 누림, 함께 함이다.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지고 공심(共心)·공체(共體)로서 공생·공용·공식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하느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相依] 서로 도우며[相補] 산다. 더불어 사는 것이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란 이 같은 상의·상보의 자연법칙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물론 자기의 소득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하는 사람은 자신이다. 남을 돕는 데 쓰건 자기만의 쾌락을 위해 쓰건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자기가 누리는 부·명예·권력이나 향락까지도 상대가 있음으로써, 상대의 협조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은 스스로 알든 모르든 간에 엄연한 현실이다. 고로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경우라도 각자의 언행엔 최소한의 한계가 있어야 한다. '나의 즐거움, 나의 누림이 남의 속쓰림, 남의 빈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움켜 쥐려는, 재화·권력·명예 따위를 움켜쥐려는 마음의 무게만큼 도의 마음은 줄어든다. 반대로 비우는 마음의 무게만큼 도의 마음은 증장된다.

움켜쥔 데서 오는 기쁨, 그 갈애·집착의 기쁨은 비운 데서 오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비움의 기쁨을 법열(法悅)이라 한다.

부처님께서는 다 비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누리는 생활을 강조하신다. 무주상(無住相)보시의 공덕을 찬탄하신다.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마음의 향기로써 둘 아니게 나누고 누리는 삶, 나와 너의 경계선이 거두어진 삶의 현장에서만이 비로소 불국정토가 실현된다고 가르치신다.

비움의 자리, 거기에선 나와 남의 구별이 사라진다. 고로 그 자리에 서면 보시란 '내가 내게 주는 것' '남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었다, 받았다는 의식이 없다. 그대로 무주상인 것이다.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오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왔으니 우리 모두는 '너와 나'가 아니라 하나, 한마음이다.

하나요, 한마음이니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것이며, 누가 누구의 것을 빼앗을 것인가. 오로지 '나를 위해서'라고 누가 말할 것인가.

더불어 사는 이 세계의 상대성을 생각할진대 함께 나눔·함께 누림·함께 함은 바로 우리들의 생활 덕목(德目)이자 불법을 따르는 길이요, 부처되는 길이 아니겠는가.

협찬 : 임 재 환



종교·시민단체 남북이재민돕기 전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등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남북한 이재민 돕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남북한 이재민을 돕기위한 캠페인 전개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스님을 비롯 종교계 지도자와 시민단체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금담스님 '아미타경 강설' 출판기념법회

태고종 부원장 이금담스님의 '아미타경 강설' 출판기념법회가 지난달 28일 오전11시 총무원 설법전에서 성황리에 봉행됐다.

이날 출판기념법회에는 총무원장 박서봉스님, 부원장 최혜초스님, 법인행정원장 이규범스님, 종승연구원장 김운경스님, 한불여행사장 종연스님, 총무부장 윤자월스님등 5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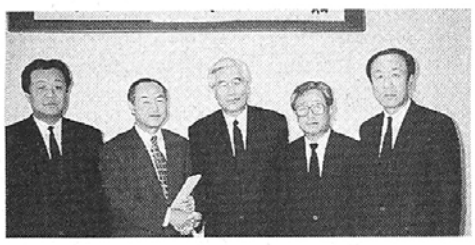


불전국역연구원 제1회 연수과정 수료식

중앙승가대학 부설 불전국역연구원(원장 혜남스님)의 제1회 연수과정 수료식이 지난 4일 중앙승가대 정진관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홍종숙 김동숙 김환길 최민자씨등 4명이 공로패를 수상한 것을 비롯 1·2기 28명이 수료했다.

혜남스님은 축사를 통해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끝"이라며 계속적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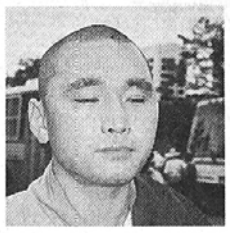
동국대 '미산기념장학금' 전달식

동국대 故 홍정식 명예교수의 뜻을 이은 '미산기념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5일 동국대 총장실에서 거행됐다.

故 홍정식 교수는 지난 61년부터 20여년간 동국대에 재직해 왔으며, 고인의 뜻에 따라 장남 홍성룡씨등 유가족이 참석해 장학금 1억원과 장학금 기부증서를 동국대에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불교대학 재학생에게 지급된다.

"아파트 건립 무조건 철회"

범어사 살리기 청년승가대회 대변인 선재 스님



"1천3백년이 넘는 고찰 범어사 앞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승가의 위상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1일 '범어사와 금정산을 살리는 범청년승가대회'를 개최한 대변인 선재스님은 아파트 건립 반대의사를 단호하게 밝힌다.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전제하에 층수를 낮춘다는 등 경동건설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파트 건립은 무조건 철회되어야 한다며 일체의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년승가의 입장이라고 협상설을 일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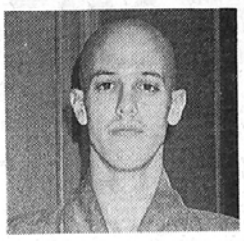
선재스님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는 바로 "금정산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며 의혹을 받고 있는 허가 경위를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당국에 항의했다.

〈병〉

"음식매워 혼쭐…많은것 배웠어요"

행자교육 끝내고 사미계

에른 리거 스님



"법문을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도 훌륭한 기회였어요."

23일간의 해인사 행자교육을 마치고 5일 회향식에서 사미계를 받은 에른 리거 예비스님(24, 미국).

주한미군으로 관문점에서 근무하다 불법에 매료돼 작년 태국에서 출가한 리거 예비스님은 북방불교를 배우기 위해 2개월전 한국에 건너왔다.

의정부 봉천사에서 공부 도중 이번 9차 조계종 행자교육에 참가하게 된 리거 예비스님은 입재한 2백28명 가운데 유일한 외국인.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음식이 너무 매워 혼났다고 웃으며 말하는 푸른 눈을 가진 리거 예비스님은 언제까지나 부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며 서툰 한국말로 힘주어 말했다.

〈우〉

교차로

'바른정치…' 발족대회 참여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바른 정치를 위한 입법청원운동 본부' 발족대회에 참가했다.

스님이 공동대표로 있는 '바른정치…운동본부'는 9월 중순 정치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거쳐 10월초까지 정치관계법 개정청원운동 등을 펼친다.

지장스님 1300주 행사 참석



광우스님(전국비구니회장)은 지난달 24일 중국 구화산 불탁원 개원 5주년 기념식 및 25일 육신보전에서의 김지장스님 탄신 1300주년 기념식에 참가하여 축사를 하고 지난 3일 귀국했다.

서울시 소방본부에 복사기



시현스님(조계종 문화사회부장)은 조계종을 대표해 지난 5일 오후3시서울시 소방본부를 방문, "삼풍참사시 헌신적인 '구조작업에 노고를 치하한다"며 강원도 소방본부장에게 복사기 1대를 전달했다.

태아영가 천도 사경법회



자우스님(금강사 주지)은 최근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를 펴내고 태아 영가천도 사경참회법회를 시작했다. 지난 11일 입재한 참회법회는 다음달 9일 회향한다.

(02)993-3744

안양 백련사서 간병인교육



각현스님(연꽃마을 이사장)은 오는 25일~29일 안양 백련사서 간병인 교육을 실시한다.

부산 거사림법회서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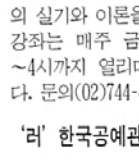
종범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은 지난 12일 오후7시 봉도사 부산포교당에서 개최된 부산불교거사림법회에 참석, 법문했다.

지역노인 위한 추석 잔치



제원스님(길음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지난 7일 복지관에서 지역노인을 위한 추석맞이 노인잔치를 열었다.

외국인 노동자와 추석맞이



법륜스님(정토포교원 원장)은 8일~10일 네팔 등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 송편을 빚으며 추석을 함께 보냈다.

강릉 경실련 공동대표 선임



부동스님(강릉 관음사 주지)은 최근 정식 출범한 강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에 선임됐다.

원각사지 관리 맡아



청청스님(원각사복원추진위원회 장)은 종단으로부터 종로 3가 탑골공원내 원각사지 관리인으로 위촉받았다.

중앙문화센터서 불화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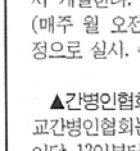
손연칠교수(동국대 미술학과)는 오는 15일부터 중앙문화센터에서 '불화강좌'를 지도한다. 불화의 실기와 이론을 가르치는 이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후2시~4시까지 열리며 3개월 코스다. 문의(02)744-4412

'러' 한국공예관 개관식 참석



신국주씨(전 동국대 총장)은 지난 8일 모스크바 국립동양박물관에서 개최된 한국전통 공예관 개관식에 참석하고 귀국했다.

파리 '한국 현대미술전' 참여



서세옥씨(동양화가)는 지난달 15일부터 파리 주방 데꼬르들리에 미술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국 현대미술 파리초대전'에 참석하고 있다.

또 이만익씨(서양화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제4회 행원문화상 수상





무비스님(범어사 전 강주, 사진 위)이 80권본 〈화엄경〉을 새롭게 완역한 공로가 인정돼 지난달 29일 중앙승가대 학부설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 제4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불교방송 김정학 PD도 함께 수상한다.

라이따이한 돕기 나선 신영순 코베트회장



무소유와 봉사를 삶의 좌우명으로 약자의 편에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신영순 코베트 회장(법명 대원각 58세).

베트남 한인2세와 함께 가기 운동(약칭 코베트)을 추진중인 신회장은 한국 여의사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지난 91년부터 한국여의사회 회원들과 베트남 현지 파견 무료 의료활동을 펼쳐왔다.

그 첫번째 사업으로 지난 7월 15일 베트남 호치민시 탐빈구 탐도식당에서는 신영순회장의 주례로 박정아 양등 한국인 2세 5쌍 부부가 백년가약을 맺기도 했다.

신영순회장은 코베트운동에 임하는 자신의 생각을"이 세상 모두는 한 가족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실천하는 일"이라는 한마디로 매듭 짓는다.

현재 안양서 모자보건 전문 신영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회장은 "베트남은 불교국가입니다. 따라서 코베트 운동에 불교계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라고 말하기도.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일이야 말로 진실한 불교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 믿는다는 신영순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코베트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며 자신만만한 포부를 피력했다.

코베트(02)719-1391

이은자 기자

"핏줄나눈 이웃 따뜻이 돌봐야죠"

무료진료·취업·합동결혼식등 알선

"남의 나라도 도와주면서 우리 식구는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신회장의 말이다.

베트남 전쟁때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따이한'들은 신원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정부기관이나 상점 취업을 거부당하는 등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다.

신회장은 이런 그들에게 모국의 따뜻한 손길을 뻗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합동결혼식, 기술교육, 취업알선, 양부모 맺기, 신용금고 등의 사업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 코베트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라고 밝혔다.

게시판

▲불교음악 강좌 개설=부산불교음악지도협회(회장 김성국)는 제1회 불교음악아카데미를 본지 부산지사 강당에서 개설한다. 18일부터 3개월(매주 월 오전10시~12시) 과정으로 실시. 수강료 무료.

(051)634-5114

▲간병인협회 교육=부산불교간병인협회는 제2기 교육을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오후 1시~5시) 협회 강의실에서 실시한다. 강의료는 무료.

(051)441-2028

▲전통사찰음식 무료공개강좌=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는 오는 18일 오후 2시~4시 경북 영주시 대화예식장에서 무료 공개강좌를 갖는다. (0572)33-3464

▲기초교리 강좌=조계사(주지 현근)는 16일부터 초심자들을 위한 기초교리강좌를 3개월 과정으로 매주 목·금요일 실시한다. (02)720-1390

▲물리치료실=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선례)은 매주 월·수·금요일 저주파 치료, 자외선 치료등의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 (02)817-8054

▲불교학 전문강좌=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19일까지 한국불교학 전문강좌 및 불교원전연구회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02)765-9602

▲용화사 학생회 창립제=안양 용화사 학생회 창립제가 16일 오후5시 용화사에 열린다. 안양지역 청소년 포교를 위한 다채로운 문화 한마당으로 마련된다. (0343)52-1603

화촉 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 국제 계장 조용준씨가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 용산 전우회관에서 신부 정미양을 맞아 화촉을 밝힌다.

부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사무국장 모친이 지난 4일 별세, 6일 오전 10시 발인. (0431)231-1194

경축

국씨전영양소 후원으로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다

★일시 : 1995년 11월 ★장소 : 중국(광주)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국씨 전 영양소(한국총판)
전화:(02) 929-0211~4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자하여 만든 제품.

信心이 돈독한 佛子로서 악간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확실한 수입이 보장된 국씨전영양소 사업에 동참할 한분을 초빙합니다. Mr. 박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영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

"잘 불어야지 생각 놓고나니 이제는 '댓소리' 일뿐…"

산문밖의 禪 대금명인 이생강 씨



대금과 동고동락 50년…산조는 삼라만상 표현
"푸르고 곧은 소리는 듣는 사람 마음 편케해요"

헤르만 헤세는 그의 작품 〈싯달타〉에서 독자에게 강물소리를 들려준다. 처음엔 주인공 싯달타가 강이 웃는 소리를 듣고 놀란다. 자신을 비우고 진실된 경청자가 되자 분노의 외침,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수없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러한 강물소리에 싯달타는 운명과 대결을 포기하고 번뇌에 종지부를 찍는다.

반복하지 않고 연결돼야

대금의 명인으로 불리는 이생강(李生剛: 59세, 중요무형문화재 45호 대금산조)씨를 찾은 것은 싯달타가 깨침을 얻게한 그놈,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대금은 대(竹)의 소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는 항상 푸르고 곧아서 그 소리가 멀리퍼져 나갑니다. 깨달은 이의 마음은 대소리와 같아 오래 이어지지요."

대통좌상의 취공과 밑의 청공에 갈대의 엷은 막을 붙여 진동으로 소리를 낸다. 기이하게도 대금의 재료가 되는 대나무는 돌연변이를 취한다. 음지에서 자라 살이 통통하게 찌고 휘어져 있는 쓸모없는 대나무이다. 두께가 엷으면 사람의 입김에 배겨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위에 있는 양분을 모두 빨아먹는다고 하여 사람들이 대금용 대나무를 베어버리기 일쑤여서 대금소리는 본래부터 듣기 어려운 소리이다. 이렇게 어렵게 구한 대나무에 구멍을 뚫는다. 대나무의 두께에 따라 구멍의 간격과 크기를 조절하고 연주자의 입김이 잘 길들였을 때에야 대소리다운 소리가 나온다.

"젊어서는 최고의 연주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불타 있었습니다. 열심히 불었습니다. 밥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는 대금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반세기가량 대금을 불다보니 1등도 꼴찌도 없더군요. 이제는 잘 불어야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대금을 잡았을때 대금을 부는 놈, 대금이란 놈, 그리고 듣고있는 놈이 없어야 비로소 대금산조가 나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대금의 명인 이생강은 일본에서 태어났다. 날때부터 대피리, 퉁소, 태평소의 명인이었던 아버지(이수덕)의 피리소리를 듣고 자랐다. 부친의 재능을 이었던지 어려서부터 피리의 천재란 소리를 들었고 부친의 가르침을 받았다. 피리를 불 때마다 한번도 가보지 못한 아버지의 고향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리움이자 어린 이생강의 동경이었다.

해방이 되어 그리움의 땅을 밟았다. 그러나 '우리말을 못한다'는 동네아이들의 손가락질속에 외로움을 삭일 수 없었다. 제일 늦게 익히게 된 대금이 이생강의 마음을 알아 주었다. 10살무렵, 평생의 스승인 한주환 대금명인을 만나 설움과 한의 대금소리를 산조로 바꾸기 시작했다.

손을 불에 데이면 입으로 찬바람을 내서 식힌다. 입에서 내는 바람이다. 그러나 추운날 손을 녹일때는 아랫배에서부터 힘껏 입김을 분다. 바로 이 바람으로 대금을 불었을때 소리를 자유자재할 수 있다. 스승 한주환은 어린 어생강에게 복식호흡으로 대금을 부는 방법부터 가르쳤다.

벌떼가 꿀 따오는 소리

"대금산조는 삼라만상의 표현입니다. 어려서 절에서 대금공부를 했던 인연으로 중생들의 고통과 깨달음은 저에게 떨쳐지지 않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영산재는 악상을 착안하는 훌륭한 교재입니다."

어느 소리이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에 가요 '칠갑산'을 청했다. 50년전 스승이 직접 만들어 줬다는 대금을 잡더니 거침없이 입술에 댄다.

저취(부드러움)로 시작한 대금소리가 힘들게 칠갑산 고갯길을 넘어서는가 했더니 광취(곧고 굳음)로 들어섰다. 다시금 대금소리가 끊어지는듯 이어지고 고취(가장 높은 음)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여인네의 한을 토해내고 만다.

노래방에서 수없이 불러 제꼈던 노래였건만 한번도 느끼지 못했던 가사속의 여인을 마주대하고 보니 정녕 이것이 대금소리인가 싶다.

"선생님도 바로 이 소리를 듣습니까."

"잘 불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댓소리일 뿐입니다."

'60년, 유럽순회공연에서 〈피가로〉라는 잡지가 '수만마리의 벌떼가 꿀 따오는 소리'라고 감탄했다던 이생강의 대금소리.

그 소리는 헤르만 헤세의 싯달타가 강가에서 수천가지 소리의 커다란 노래는 단지 하나의 말 〈옴〉, 즉 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던 〈옴〉이었다.

'선생님의 대금소리는 하늘의 선율' 운운하며 치켜세우다가 '그냥 대나무 소리'라는 대답에 머쓱해져 버리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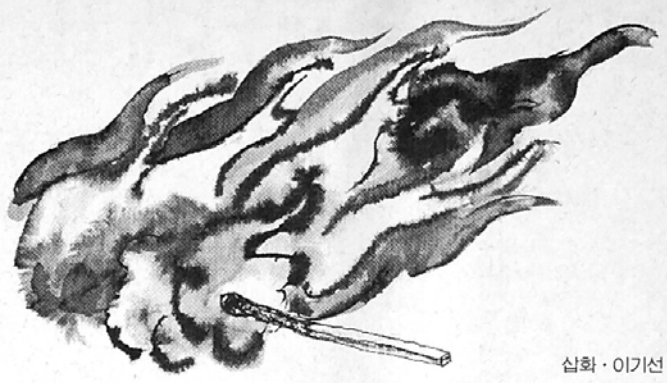
우리는 소리듣기에 무심하다. 늘상 열려있는 귀이지만 한번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 푸르고 곧은 댓소리를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절에서 종성을 들어보셨겠지요. 한번 내리친 종소리가 끝나는 듯 했을 때 다시금 종소리가 이어집니다. 이렇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 대금도 가락이 반복하지 않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연주자의 마음이자 기량입니다."

피리 단소 소금 퉁소 태평소. 불어서 소리를 내는 국악기는 많아도 유독 대금만이 산조가 있다. 산조는 곧 관소리이다. 사람의 몸짓이 우리의 음악 관소리이다. 대금산조는 단지 가사가 빠진것 뿐이라 할 수있다.

대금은 65㎝ 안팎의 죽관악기이다.

이준엽 기자



삽화 · 이기선

"불태우지 마라" 생명존중 외침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㊷

방화(放火)

"불자들이여, 나쁜 생각으로 큰 불을 놓아서 산림이나 광야를 태우리요. 4월부터 9월 사이에 불을 놓아 남의 집이나 도시나 승방이나 밭이나 사당이나 신당(神堂)이나 관청의 공공물을 불태우지 말며, 일체의 주인있는 물건들을 짐짓 불태우지 말지니라. 만일 짐짓 불태우는 이는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산이나 건물 등에 방화한다면 재산을 손실시키고, 그 속에 사는 무수한 생명을 죽게 하기 때문에 이 계를 제정한 것이다. 특히 4월에서 9월 사이의 6개월 동안은 짐승과 곤충들이 번식하는 때이므로 방화하지 말라 한 것이다. 법장(法藏)은 산야(山野)와 건물로 나누어 근본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산과 들을 불태우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살생하는 죄를 막기 위함이고, 집이나 가택을 불태우는 것을 제지하는 것은 도계(盜戒)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니라."

태현(太賢)은 대지도론(大智度論)의 한 설화를 인용하여 본의를 밝히고 있다.

"육도중생은 내 부모"

가리지 않고 살생하는 것이 허물없이 방화하는 것이니, 굉도 오히려 날개에 물을 적시어 불타는 난리를 구하려 하거늘, 보살이 방화하면 도를 거스리는 것이 심하므로 제정하는 것이니라. 만약 방화하여 생명을 해치고 물건을 손상하면 별도로 살생과 도둑질한 죄를 짓게 되니, 유가사지론에서 설하되 '불을 놓아 태우는 것은 바로 도둑질하는 중죄이다'라고 하였다.

의적(義寂)도 세계가 두가지 중죄 즉 첫째 살생을 막고 둘째 도둑질의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살이 대자비로 육도에서 삼독(三毒)으로 불타는 집에 살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보살도인데, 방화하는 것은 재산을 손실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며 나아가 무수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살심 버리고 '火宅' 지어서야

이러한 생명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된다. 제20경계 不救存亡戒(불구존망계: 방생하고 구제하라)로 이어져 하지 마라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대승의 본의적 입장인 ~하라는 입장으로 적극적인 입장에서 전개되어 나타난다. 즉 자비(慈悲)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다.

"불자들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업을 행하라,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나의 아버지였고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였으니, 나의 세세생생으로 보면 그들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육도중생이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거늘, 그들을 잡아서 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니라. 모든 지대(地大)와 수대(水大)는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화대(火大)와 풍대(風大)는 다 나의 본래의 몸이니, 그러므로 항상 방생을 행할지어다.

세세생생 몸을 받아 상주하는 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방생을 하도록 가르치고, 만일 세상 사람들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방편으로 구호하여 그 고난을 풀어 줄 것이며, 항상 널리 교화하되 보살계를 강설하여 중생을 제도해야 하느니라. 부모나 형제가 돌아가신 날에도 법사를 청해 보살계와 경율을 강하여, 죽은 이의 복을 빌어 주면 부처님을 뵙고 천상이나 인간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니,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방생 실천하는 생활

태현은 방생을 하므로써 죽음의 고난에서 구해주고, 천도법회 때 보살계를 강설하므로써 망령을 돕는 두가지 뜻이 있음을 밝히고, 사망한 날에 보살계경을 강설하는 것은 참으로 이 계에 두가지 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능히 악을 막기 때문에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요, 둘째 모든 선의 근본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친견하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니라. 계 중의 계 이른바 보살계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니 진리의 근본이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까닭에 보살계경을 설하는 것이니라.

이 계의 취지에 대해 법장은 보살이 자비심으로 괴로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지 않는 것도 보살도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살은 이치상 마땅히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중생을 구해야 하거늘, 도리어 화택(火宅)속의 중생을 보고도 자비로 구하지 않는 것은 보살행을 어기는 것이 심하기 때문에 모름지기 제정하는 것이니라.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대원불교대학에서는 정법의 기치아래
대중불교를 선도할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 및 종교학	완전강독 I

■ **특 전** : 졸업후: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납골제 종교단체가 앞장서야"

토지행정학회 종교계·시민등 748명 설문조사

납골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환경단체와 종교단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문 분석결과가 나왔다.


◇김태복교수

한국토지행정학회 회장인 김태복교수(중부대)는 지난 5~6일 유성레전드호텔에서 열린 '지방자치시대의 한국묘지문제 개혁을 위한 세미나'에서 '지방자치시대의 한국묘지문제 개혁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묘지문제와 관련한 설문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8월17일~31일까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와 장묘업무담당 공무원, 장묘업계(제2국립묘지 서울시장묘사업소 공원묘원 등), 교수, 전문직, 시민단체, 시민, 대학(원)생 등 7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골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환경단체(48.8%)와 종교단체(29.7%), 행정기관 및 지방의회(18.3%)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현대화된 납골묘원의 시범적인 조성은 관광지가 있는 사찰 및 공원묘원을 선호(49.2%)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공설묘지의 운용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운용이 71%인 반면, 수익사업으로는 14.7%에 그쳐 이에 대한 교계의 사회복지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국형 납골묘지모형 등의 공모와 지역별 특성에 따른 묘지제도의 채택에 대해서는 6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납골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납골제도에 따를 시 납골당의 안치기간은 10년이상이 48.8%, 5년이 23%, 7년이 15.8%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답자의 직계가족과 배우자가 사망시 택하는 주요 장례방법은 아직도 묘지로 지정안된 선산 또는 종중산 등에 매장하는 것이 5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묘지관행과 매장관습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이밖에 묘지이용과 관련, 기존묘지를 합리적으로 재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58.6%로 나타나 묘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함을 보여줬고,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령, 국립묘지관리령 등의 모순에 대해 51.9%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28.9%는 입법·행정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교수는 "전국 9천9백80여개소의 공동묘지 재활용방안, 약 7백50만기로 추산되는 무연분묘의 합리적 처리방안등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공설묘지와 종교단체의 묘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환경단체서 선도" 49%
수익사업보다 복지차원 운영 71%

김재경 기자

미륵신앙, 시대따라 달랐다

신라-상류 귀족층 고려·조선-하층민중이 주로 신봉

실재숙씨 '구비문학…' 서 주장

설화 속의 미륵은 왕권을 수호하는 편에 서는가 하면 민중의 꿈을 대변하기도 한다. 또한 민중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절대자인가 하면 좌절된 민중의 꿈을 표상하기도 한다.

이처럼 "설화에 나타난 미륵의 성격이 단일하지 않은 것은 전승시기나 전승집단의 성격에 따라 미륵에 대한 인식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구비문학회(회장 서대석)의 학술지인 〈구비문학연구〉 제2집에 심재숙씨(고려대 박사과정)가 발표한 '설화에 나타난 미륵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는 〈삼국유사〉와 구비설화에 나타난 미륵이야기를 통해 신라시대 이후의 미륵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를 분석했다.

논문의 요지는 귀족불교가 주류를 이루었던 신라시대의 미륵신앙은 불교의 전체적인 성향과 마찬가지로 상층중심의 것이었던 데 비해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미륵신앙은 하층민중의 신앙으로 역할했다는 것.

구비전승되는 미륵이야기는 미륵의 형상화 양상에 따라 크게 '미완의 미래불'로서의 미륵과 '꿈의 구현자'로서의 미륵으로 나눠진다. 이같은 구비설화 속의 미륵은 고려시대 이후 민중이 끊임없이 감당해야 했던 현실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민중의 꿈에 대한 상징적 표현물이란 설명이다.


◇중원 미륵사지 미륵불.

"발해는 황제국…북한측 연구 활발"

연변대 방학봉교수 4일 '발해사 강연'

연변대 발해사연구소장 방학봉교수 초청 '발해사 학술강연'이 지난 4일 정토회 국제사업부 주최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방교수는 "발해지역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변방지역에 속하므로 발해사 연구는 주변 국가 각자의 이해관계와 연관돼 예민한 문제"라며 "북한이 발해사의 역사적 전통성을 안정, 고려의 후삼국통일을 우리 역사의 최초의 통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발해사를 이해하려는 입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의 폐쇄적인 민족정책에 따라 한국학자들의 발해유적 조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 발해사 관련 논문은 대체로 1천권 정도이며, 이를 중 러시아는 4%, 중국 53%, 일본 23%, 남·북한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방교수는 또 "정효공주 묘비문에 아버지 문왕을 황상(皇上)이라고 표현한 것은 발해가 황제국을 표방한 증거"라고 말했다.

근대사 50년 자료 정리

불교 근현대사연구회

선우도량 부설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는 근현대사의 불교자료집 발간을 위해 1920년~70년까지의 주요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1차 자료수집을 마치고 10월에 책으로 묶는다.

큰스님 앞에 가면 질문이 막혀요

문 여러해 사찰에 다녔고 관련 서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선 제법 불교가 어떻고…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큰 스님 앞에 가면 말문이 콱 막혀 질문을 할 수 없는데요, 스스로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박희문·경기 안산시 성곡동〉

답 우리는 지금 말없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고, 보지 않고 보는 능력, 듣지 않고 듣는 능력,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함이 없이 한다'는 도리를 터득하고자 노력하는 게 불법공부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게 말같이 되는 일은 아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한다, 내가 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스님 앞에 가서 말문이 막힌다고 하는데 그 또한 '질문하는 나'가 굳게 자리를 잡고 있는 까닭입니다.

전에 어떤 학인이 한암스님께 공부해서 깨치는 길을 여쭈었더니 큰 스님 말씀이 '삼년을 눈 뜨고 푹 쉬면 된다'고 하셨더랍니다. 큰 스님 말씀은 보지 않고 보는, 듣지 않고 듣는 도리를 가르치시려 한 것이지요.

처사님이 제법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스님 앞에서 말이 막힌다 하는 것은 처사님의 공부가 비유하자면 김치를 담그는데 무·배추는 장만했지만 양념을 알맞게 구비해서 잘 버무리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해야 하는데… 하고 애써 지어내려 할 것도 없고, 또 질문하고 싶은게 생각나면 그대로 물으면 됐지 이런 질문이 이치에 맞을까 안맞을까, 혹은 유치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짓기에 말문이 막히는 것이지요.

설사 질문 내용이 유치하다 하면 어떻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틀리는 것도 법, 안틀리는 것도 법인데 유치하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것,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사량분별로야 저 벌레먹은 고목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하겠지만 그게 있음으로써 산에 산다운 운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멋진 질문, 그럴싸한 질문을 할려고 생각했다면 그 순간 빗나간 것입니다.

대학원생 아들이 방황하는데

문 대학원생 아들을 둔 한 어머니입니다. 3학년 전 어느날 아들이 갑자기 휴학을 하더니 이제는 아예 자퇴를 하겠다고 합니다. 딱히 무엇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방황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 나름으로 부처님 말씀을 일러주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별 반응이 없습니다. 스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최현주·경북 구미시〉

답 우선 보살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철석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마음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란 체가 없으면서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 공능 또한 무한·무량이라 하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없이 마음이란 비유컨데 무량의 보배창고입니다. 또 발전소로 비유하면 무한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그런 발전소나 같습니다. 먼저 그 점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체가 없으니 어디에나 미칠 것이고 내 아들에게도 아무런 걸림이 없이 미칠 것입니다. 그것을 또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서 보살님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방마다 전선을 가설해 놓고 전등을 달아 놓지요. 그렇게 해서 소케트의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방방이 밝아지게 되지요. 우리의 마음도 그와같이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바로 전등·스위치·전선으로 연결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음이라는 전기는 다 흐르고 있으니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선마다 전기는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스위치를 올릴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믿고 내 마음의 불을 켜면 아들의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한다면, 철석같이 믿지 못한다면 스위치를 제대로 올리지도 않고 방방에 불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아들이 이 도리를 모른다해도 보살님의 마음이 지극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애걸복걸, 안달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뿌리이니까 아들을 턱 믿고 '스스로 밝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고 놓으십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면 나무도 잘 자라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 모든 중생을 내몸같이 사랑하신 그 동체대비가 곧 한마음의 도리입니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니라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김용사 입구 일주문.

김용사

일주문

入此門來莫存知解
(입차문래막존지해)

無解空器大道成滿
(무해공기대도성만)

이 문을 들어오거든 알음알이를 피우지 말라
알음알이 없는 빈 그릇이 큰 도를 이루리라

해설 김용사(金龍寺)는 신라 제26대 진평왕 10년(서기 588년)에 운달(雲達)조사가 창건했다. 임진왜란 때는 완전히 불타는 비운을 맞았으나 인조 2년(1649)에 혜총선사가 중건했다.

48동의 건물과 14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전할만큼 규모가 컸던 김용사는 지금도 규모면에서나 역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찰이다. 일주문의 주련은 이·사찰이 선·교에 치우치지 않은 수행도량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우선 사찰을 들어설 때는 세속에서의 지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찰은 무엇을 채우러 오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러 오는 곳이란 뜻이다. 사찰이 수행도량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비워냄'의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비우지 못하여 넘쳐나는 것은 번뇌요 망상일 뿐이다.

그래서 일주문의 의미는 각별하다.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선이 바로 일주문이다. 번뇌의 세계와 그 번뇌를 씻어 맑고 맑은 자성(自性)을 찾는 세계 사이에 선 분이 바로 일주문이다.

번뇌와 해탈의 가운데점에서 있는 일주문에 '속세의 알음알이를 버리고 들어오라'는 엄중한 경고가 있음으로 사찰은 엄연한 도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마음 속의 세속 먼지를 털고 들어오면 알음알이가 없는 텅빈 그릇과 같은 마음에 커다란 도(道)가 충만하리라는 것. 이 얼마나 희망찬 경고인가.

〈안동 경안중 교사〉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세속의 번뇌 마음 비우라' 경고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지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활천당 한약방 (대구 약전골목 중간)
한약의 명소 40년 전통 간염 간경화증 상담 요함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6-1 (053-252-8274)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645-6224 대구:952-8711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총판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20-9372~3
·FAX (02) 723-0646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40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 (서울사무소)
☎ (0331)283-2083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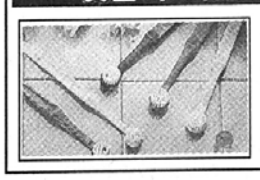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일찍이 흥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규동 대표 이규영 합장
동양석재 주간:(0357)541-4705 야간:(0351)847-2001

단청·불상·탱화·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문의처: 468-8329
■호출기: 012-307-8329
박석언 합장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02)273-1239
대표 이강화 합장

관음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카세트·설법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전화: (02)556-3076~7 ■팩스: (02)556-3078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쉽게 풀이된 최신「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철저한 1:1「담임 관리제」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형희(72세, 할머니):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中·高·大과정(36개월)

■특전: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 (세일재도움)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두축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신행정보 사찰안내 자원봉사 시설이용

'불교 114'로 문의하세요

전화 한통화로 OK…'자비의 전화'서 운영

서울·경기 11월 개통…내년부터 전국망

"도봉산 등산길에 사찰을 참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코스를 잡으면 좋을까요?"

"저희집에서 가까운 불교유치원이 있을까요?"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싶은 불자, 어린자녀를 부처님 품안에 맡기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그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주는 '불교114'(가칭)가 오는 11월 개통된다.

불교114는 5년째 불교전문상담기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가 올 봄부터 꾸준히 준비, 제1단계 사업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사찰에 대한 각종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불교114는 전화국의 114 안내와 마찬가지로 전화 한통화로 사찰 및 불교관련단체, 문헌 등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최첨단 불교정보서비스다.

자비의 전화는 불교114 개통에 앞서 지난 4월 설문조사를 실시, 불교관련단체 종사자 5백21명 중 90%인 4백69명이 불교정보제공기관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4천5백여만원의 투자로 현재 프로그램개발은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서비스 확대를 대비, 전체적으로는 30%의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는 것이 자비의 전화 자체 평가다.

불교114의 서울·경기지역 서비스 개통과 더불어 96년부터는 서비스망을 전국으로 넓혀나가게 된다.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자비의 전화를 돕는 1백대 사찰'을 선정, 불교114에 대한 종단과 사찰,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도 진행중이다.

"불교114는 단순히 한 단체의 사업이 아니라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대비, 우리불자들이 원하는 체계적인 불교정보서비스를 전달하는 첨병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는 것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회권국장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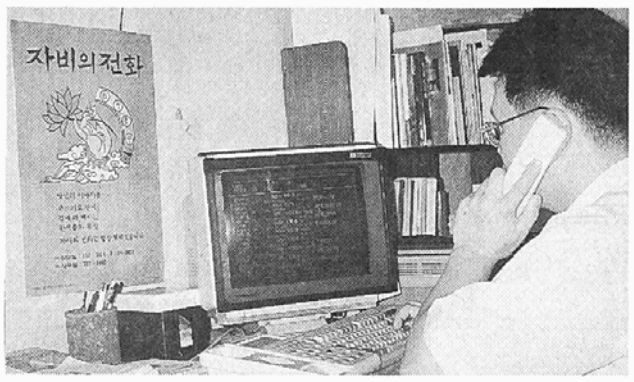
자비의 전화는 불교114의 정보서비스 개통을 위해 현재 두 대의 전화를 개설해 놓고, 전문상담자와 곧바로 연결되는 직통전화방법과 ARS자동안내문에 따라 상담자와 연결되는 두 가지 방법을 모색중이다. 이용방법과 전화번호가 확정되는 즉시 불교114의 적극적 홍보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자비의 전화는 장기적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는 2천년에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서비스를 전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불교114의 이용은 해당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의 하면 상담자가 컴퓨터검색을 통해 사찰의 위치, 전화번호등 기본적인 안내와 함께 정기법회, 사찰내 신행모임, 사찰유래, 역대 주지스님, 부설 시설등의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주게 된다.

전문가들은 종교계 최초로 이뤄지는 불교114가 불자들의 신행길잡이로서 보다 적극적인 불교포교의 새 장을 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 '자비의 전화' 불교114는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검색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현재 1만4천여개 사찰의 연혁·신행정보등이 입력돼 있다.

녹차 암·심장병 예방 효과

국제녹차심포지엄서 발표

녹차를 마시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체내콜레스테롤 함량이 줄어들고 암과 심장질환등 각종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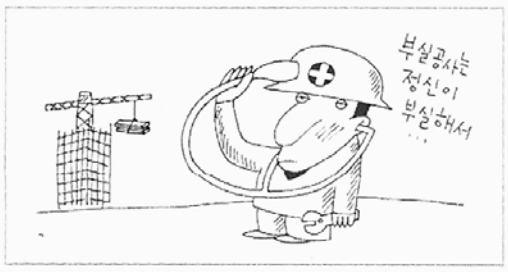
이는 지난 1일 한국식품과학회 주최로 열린 제 3회 국제녹차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식품전문학자들의 연구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만성질환에 대한 차의 예방효과 △녹차음용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과 암의 예방효과 △건강과 방사선 손상에 대한 차의 효과 △차의 항 알러지 효과 △충치예방효과에 관한 차의 연구와 평가 등 11개부분에 걸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리후 건강칼럼 <33>

부실한 마음

주위사람에게 화미치지 않도록 수양을



집을 짓는데도 기초가 부실하면 이번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져 내린다. 부실해서 덕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같은 내용의 부실을 거듭거듭하고 있었으니 뭉매하다는 말을 백번 들어도 옳다.

씨는 뿌린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그런 부실도 결국은 우리들이 뿌린 씨앗대로 결과 지워진 것이라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다. 결국은 그런 씨를 뿌린 사람들의 몫이긴 해도 그 주변에서 죄없이 살아가던 많은 피해자를 내었으니 그것이 안타깝고 분할 따름이다.

부실한 공사를 하면 지금같은 붕괴로 많은 사상자를 내는 참사로 이어지지만 충실한 건축은 오랜 쓸모도 쓸모이려니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길이 남아 후세에 전해지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자랑과 긍지를 남겨주기도 한다. 지금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찬란한 지난날의 유적들을 보면 그런 생각들이 정리된다.

어찌 건축이나 유적들에 국한할 이야기겠는가. 사람에게도 그 사람 됨됨이에 따라 품격이 정해진다. 소위 인격이란 말로 통칭되는 사람의 질적품격은 그 기초가 부실하면 스스로를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누를 끼치는 인격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인격의 기초가 충실하다면 그는 자신의 성숙함은 물론 자신의 성숙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존재가 된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부실하다는 말을 듣게 될까. 역시 사람의 마음도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마음의 기초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나 주변의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워 익히게 된다. 충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충실한 학습을 받은 사람이 부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에 비해 기초가 튼튼하리라는 짐작은 복잡한 이론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되는 장면이다.

기초가 부실하면 이 부실한 결과 때문에 많은 갈등이나 위기를 맞게 되는데 부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갈등을 직면하기보다는 은폐하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전가하는 방법과 같은 부실한 수습방법을 고집하게 된다. 기초도 부실하고 수습하는 방편도 부실하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심각한 병에 빠질까하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충실한 마음을 가꾸려는 자각과 이 자각을 꾸준히 실천으로 옮기는 집요한 노력이 따를 때만 우리는 부실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일체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했으니 그 마음이 부실해서야 되겠는가.

만화 法句經 법구경

* 폭력의 장 *
늙음과 죽음은
쉬지 않고
우리들의 목숨을
몰고 간다

이 향 원



소치는 목동이 채찍을 들고 소를 몰아 목장으로 데리고 가듯 늙음과 죽음은 쉬지않고 우리들의 목숨을 몰고 간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악한 짓 하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지은 업(業)의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면서 괴로워한다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포항법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법소	• 전화	0416-856-3280

하와이 대원사 창건 20주년 기념법회 안내

하와이 대원사 창건 20주년을 맞이하여
대덕스님과 불자 여러분을 모시고 기념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저 하오니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 : 1995년 10월 29일

곳 : 기념법회 : 대원사 법당(오전 10시 30분)
기념만찬회 및 축하공연 :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타파볼룸(오후 5시)
※ 국내 연예인 특별출연

전화(하와이) : (808) 735-7858, 4679 / FAX 732-6402
(서울) : (02) 733-7858, 9 / FAX 733-7857

하와이 대원사

스님을 모십니다
해외 포교에 뜻이 있는 분이나
사원을 도우면서 대학, 대학원 공부를 원하시는 분.

생전 예수재의 공덕

생전 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 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재단설치, 의식절차,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국판, 64페이지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서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법보시 가격/1권당 1,000원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생전 예수재 용품 보급안내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39년 윤달을 맞아 생전 예수재 용품을 2가지(1,000원, 2,000원)로 보급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즉시 납품하여 드립니다.

예수재 용품 내용물 (1,000원)

지전	1권(1천 60리)	수생경	1권
천수다라니	1장	월광보전	3권(1천 720리)
수구다라니	1장	금강탑다라니	1권
토다라니	1장	금강합장소	1개
소다라니	1장	봉투	1개
금강경	3권		
만관	3만관		

예수재 용품 내용물 (2,000원)

지전(중)	1권(1천 60리)	금전	5권(1천 720리)
지전(특)	2권(1천 120리)	월전	5권
천수다라니	1장	수생경	1권
수구다라니	1장	월광보전	3권
토다라니	1장	월광탑다라니	1권
소다라니	1장	금강합장소	1개
금강경	5권	봉투	1개
만관	5만관		

고은 불교 대하소설



다시 무욕도

이미 무욕도를 떠나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난 날의 동료들과 헤어진 뒤 아직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인담과 우녀 그리고 파현 수원 수월 다섯사람이었다.

인담이 바다 건너 육지에 속해 있는 안면도의 관목용(棺木用)의 해송 숲 언저리에서 한 남루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흠 사람 1백명미만은 거느릴 팔자로군. 겨우 1백명을 거느린 왕도 왕이라면… 내가 지금 왕의 행차에 얼드려있을 처지이지"하고 그 탯국이 잘잘 흐르는 누더기를 입은 상반신을 납짝 엎드리는 것이었다.

그때 그 기이한 노인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였던지는 기억에 없거니와 그 뒤 인담은 이 섬으로 건너와 1백명의 10분의 1인 10명의 대중을 이루어 제법 수행자들의 도량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제 만화와 곰보장이 남각 그리고 합투볼이 무전들은 이곳에 어떤 자취도 남기지 않은채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동료들의 하루하루와 무관하였다.

무욕도는 하나하나 극적으로 떠나는 동안 마치 지난 날의 무인도와도 같은 지경이었다가 차츰 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만 무전과 함께 이 섬으로 구출되었던 파현이 무전이 세상을 떠난 뒤 거의 누워있는 상태로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전부터 지팡이에 의지하여 여기저기 거닐어 보기도 하는 것이었다.

수원이 그런 파현을 보고 한 마디하는 것이었다.

"저 꽉 잃은 거위 좀 보아."

수원의 말에 수월도 한 마디 거들었다.

"우리 두 사람도 둘 중의 누가 저런 신세가 될지 모르지."

"그렇다면 수월! 자네도 이곳을 떠날 생각에 씨를 뿌렸단 말인가?"

"씨를 뿌리는 일이야 나 뿐이 아니겠지. 인담스님이나 우녀스님 그리고 저 거위나 우리 둘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

"며칠전 황해를 건너 여기까지 떠내려온 청나라 고소를 먹었지? 그것이 청나라 산동반도의 바닷가에서 여기까지 떠내려오는 동안 짠물에 떠있어서였는지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으로 싱싱하기까지 해서 그것을 인담스님이 먹어보고 우리나라 고소보다 더 진한 고소맛이 난다 하셨지. 자네! 그 고소 먹은 뒤로 자꾸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상하단 말이야."

이런 말에 수원이 정색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 무욕도 자체가 이 지상에서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네."

수원이 무슨 통판지나는 듯이 이런 말을 꺼낸 수월을 더욱 뜨아하게 여기고 있었다. 마치 둔탁하게 날아가는 공이 아주 힘들게 날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그게 무슨 소리인가? 도대체."

"그런 느낌이 들 따름이야."

"여보게 수월! 자네만은 평상심(平常心)의 사람이 되어주게. 엉뚱한 생각을 저버리고 말이야."

저쪽에서 돌아오는 파현이 8월말의 하얀 햇빛 아래에서 아주 비현실적인 환영(幻影)으로 보였다. 그 뿐 아니라 그의 힘없는 걸음걸이에는 도무지 중력감이 없어서 마치 유령의 무중력 상태와도 같이 땅 위에 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이미 파현은 그의 목소리까지 달라져서 마치 이 세상과 저 세상사이의 변성기(變聲期)에라도 들어선 것 같았다.

수원이 수월에 대한 관심을 파현 혹으로 옮겼다. 그가 가까이 온 파현에게 물었다.

"파현수좌는 요즘 우리와 상종을 하지 않을 작정으로 지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지간히 몸도 회복되었는데…"

파현의 웃음에는 창백한 기짝이 서려있었다. 가슴팍의 땀에 젖은 옷이 아릇하였다. 바닷바람이 워낙 힘차기 때문에 땀이 나올 수 없는데도 그에게는 몸의 식은땀이 알한 충고를 받고 있었다. 고려의 시인 임춘의 문집 따위를 경전보다도 더 애지중지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선(禪) 수행에서 그런 문자 따위가 마군(魔軍) 밖에 더 될 것이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과연 인담은 방선 뒤에는 그동안 벽장 안에 두었던 서하문집을 꺼내어 혼자 읽는 일이 잦았다.

이런 일도 결국은 잠든 수원들에게 알려졌고 다른 처소에서 지내는 우녀에게까지 알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니 인담 자신이 그녀의 처소로 갔던 일도 있었다.

함박중의 일이었다. 잠든 우녀를 어둠속에서 그 어둠 자체를 들고 내려다 보는 인담을 우녀가 잠을 깨어 알아볼 수 있었다.

"조용히 나가세요. 스님."

그러나 인담은 어둠 속에서 우뚝 서 있을 뿐 조금도 움직일 줄 몰랐다. 우녀가 문을 닫 쳐서 파도소리를 방안에 한층 더 큰소리로 채웠다.

그때였다. 어둠이 바깥의 파도아가리 하얀 빛에 의해서 약간 약해진 방안에서 앉아있는 우녀에게 위로부터 인담의 몸이 허물어져내린 것이다. 우녀는 인담이 하는대로 

>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거의 절망적으로 껴안았지만 그 껴안음은 지극히 일방적이었다"

43

파현은 인담과 우녀에게도 무욕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인담스님께서 공부대신 시나 읽는 것도 그런 징조인 줄 압니다"

그때 파현은 전혀 다른 대꾸를 하는 것이었다. "나 저쪽에 가서 죽은 갈매기 두 마리를 보고 왔어요. 그것들을 땅에 묻어주고 왔어요. 불쌍한 것은 인간 뿐이 아니라 모든 유정(有情)의 중생들이… 다 불쌍해서…"

그들에게 인담이 나타난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중입니까?"

그러자 수원도 파현도 싱겁게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얼마전부터 인담은 우녀로부터 배우 신을 줄 모르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의 몸은 그의 마음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파현이 말 대신 고개로 사래를 지으며 수원의 말을 물리치는 것이었다.

"파현수좌는 무전스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오?"라고 수원이 다그쳤다.

그때 파현은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나타난 표정을 하였다. 그것은 화두를 놓아버려야 치료될 수 있거니와 이 화두병으로 숨진 사람도 임진왜란 뒤의 해금강(海金剛)의 한 암자에서 생겨났던 것이다.

또한 파현의 무병이란 무당의 신이 내리는 동안의 병을 일컫는다. 이 무병을 앓고 난 뒤로 영식이 밝아져서 먼 장래의 일까지 알아맞추는 것이다.

지난 날 배를 타고 다니던 뱃사공 시절에도 파현은 사나운 파도에 즉을 고비를 맞았는데 그런 고비와도 짝을 맞추는 것처럼 무병이 돌발해서 마구 파도에 덮치고 있는 배의 갑판 위에서 돗대를 붓잡고 마구 울부짖었던 것이었다.

그러고보니 그가 무욕도 사람들에게 구출되던 그 난파(難破)의 위기에서 밤바다의 어둠 속을 헤엄칠 때에도 작은 규모의 무병을 앓았던 것 같다.

해업치던 밭이 풀어지는 것을 무전이 다가가 마구 갈겨댐으로써 한동안 잃어버린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런 과현이 오늘 따라 무욕도가 사라지리라고 말한 것은 그 자신의 정신상태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무욕도 뿐 아니라 무욕도 일대의 서해안안의 여러 섬들과 충청도 서쪽 육지의 일부까지도 물 속으로 깊숙히 잠김으로써 전혀 다른 관도(版圖)가 만들어지는 광경이 그의 현실을 초월한 눈에 내다보이는 것이었다.

인담이 이같은 파현의 예언 한 토막을 짐짓 불쾌하게 여긴 뒤에 다시 새겨보다가 문득 임춘의 시 한 구절을 떠올렸다.

한가로이 조각배 타고 돌아가 바다위 여생을 보내니
(閑乘一葉去 海上送殘生)

또 한 구절이 같은 시에 들어있어 그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는 비록 나보다 적으나
도를 듣기는 곧 내 형이거니
이별함에 이르러 내게 말하되
자네가 가거니와 나도 또한 가리라
(與我相差少 聞道卽已兄
臨別且相語 子去吾亦行)

이는 인담이 파현을 두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인담이 혼자 소리쳤다.

"파현수좌가 견성(見性)을 한 것인가!"

그림 · 조향숙

성아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왔고 당신과 함께 참물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이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자책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안의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음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이과 디포 반하바(appa deepo bhava) ———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문헌 전고를, '나는 조약돌로 본다'고 붓다는 말한다.
그대는 삶의 바닷가에서 잡기지 조약돌을 모으며 놀고 있는 어린아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하찮은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와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망쳐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내가 오른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 이경옥 옮김
신국판 전2권 / 각권 7,500원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결코 그대가 자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옷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일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영상적 깨달음과 폭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같들어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인터뷰

홍윤식 교수 「한국불화 화기집」 펴낸



"한국회화사에 있어서도 불화는 그 표현기법과 채색의 사용법에 있어 일반회화에 미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불화 화기집〉을 펴낸 홍윤식교수(동국대 박물관장)는 불화연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한국불화 화기집〉을 그 연구를 풍성히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밝혔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고려시대에서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의 불화를 그 대상으로 삼아 시기별로 화기의 기재양식과 불화조성에 참여했던 각기 소임들의 역할과 명칭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록)의 내용은 사원경제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 불화조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임과 명단을 적은 연화질(緣化秩)과 산중질(山中秩)에서 분류하고 있는 각 소임들의 명칭과 역할의 분류방법은 불교제도사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사회·사원경제사 연구자료로 활용되길"

30년동안, 불화 5백 78점 확인 작업

홍교수의 이번 책은 6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불화연구의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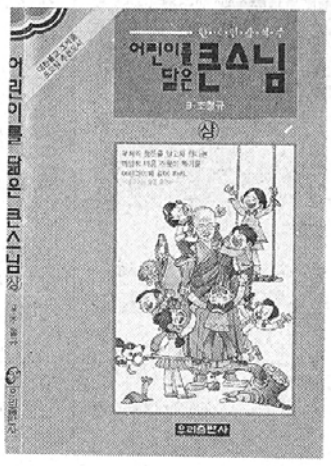
〈한국불화의 연구〉〈고려불화의 연구〉를 펴내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578점의 불화를 일일이 확인하고 화기를 모아두었다.

화기는 단순한 불화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교신앙사, 불교사회사 불교경제사 연구의 1차자료 역할을 한다.

"시주질(施主秩, 시주자목

아울러 홍교수는 "불교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한국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불교문화재를 '불교'라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통을 이어온 계통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를 닮은 큰스님' 석주스님 일대기 '동화'로



생존 고승 이야기 동화구성 첫 시도

역경·어린이 포교에 헌신한 삶 드러내

어린이포교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었던 석주스님의 삶을 동화체로 엮은 〈어린이를 닮은 큰스님〉이 우리출판사에서 나왔다. 지은이는 동화작가인 조철규씨.

생존해 있는 스님의 전기를 동화식으로 펴내기는 처음있는 일이며, 특히 법어집 한권 남김도 거추장스럽게 여길 정도로 소탈하게 살아온 석주스님의 삶을 다루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바른 삶을 제시하는 어른이 흔치 않는 현실에서 불교계의 큰스님들을 발굴해 어린이불서로 엮었다는 점에서 불교출판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석주스님의 삶이 세상사람들의 눈에 결코 화려하게 보이지 않았듯, 이 책에서도 석주스님의 소탈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가령, 오도송 한 구절을 일러달라는 부탁에 "없어요"라며 단호하게 대답한다. 언어나 문자의 묘사보다 실천적 수행을 당부하는 '할'을 던지는 부분이다. 자신의 생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온 석주스님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석주스님의 삶은 어린이포교와 역경 승가교육에 대한 헌신으로 압축된다. 그 중심은 어린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역경이며, 교육 또한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고자 한 마음씀씀이다.

자칫 전기물이 삶의 자취를 뒤따르는 연대순의 기술에 머물러 재미와 현실성을 잃게 되지만, 이 책은 가족과 이웃들이 바른 삶을 찾으려 할 때마다 관세음보살처럼 우리들 삶에 스며드는 스님의 면모를 살려내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석주스님의 어린이 사랑과 효에 대한 가르침에 중점을 두었다.

"언제나 부처님의 참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 깨끗이 하기를 어린이와 같이 하라. 망상과 온갖 집착을 멀리 떠나 마음가는 바를 걸림없이 하라."

아울러 스님의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할애해 효에 대한 석주스님의 지론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 책은 법당출입 합장 공양 등 사찰예법과 보살계 일주문 등 불교용어를 본문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가운데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불교에 낯선 어린이들을 배려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추천도서로 선정된 〈어린이를 닮은 큰스님〉의 지은이 조철규씨는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걸은 스님의 수행을 살펴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보았다"며 "어른이 된 부모가 먼저 읽고 아이손에 들려줘 '참나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불심시심 〈30〉

한 번 웃는 뜻은

機也峨嵋一病衲 (기야아미일병납) 나는 아미산에 병든 한납 중이고
我公應是學潮州 (아공응시학조주) 그대는 응당 한퇴지 배우는 선비
雲窓一笑無窮意 (운창일소무궁의) 구름 창가 한 번 웃는 한 없는 뜻
白月靑天萬古秋 (백월청천만고추) 푸른 하늘 흰 달 만고의 가을

이 시는 편양(鞭羊, 1581~1644)대사가 최생(崔生)이라는 선비에게 준 것이다. 조선조의 고승대덕은 어느 분이나 당시의 선비들과 격의 없는 사귐으로 호불의 방편을 삼았다. 편양대사도 서산대사의 뛰어난 제자의 한 사람으로 스승이 누렸던 당세의 명성에다 자신의 탁월한 도력으로 당시의 공경대부와 폭넓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사의 비명을 당시 재상이었던 월사 이정구(月沙 李廷龜)가 썼고, 행장을 겸한 비문을 월사의 아들인 이명한(李明漢)이 쓰고 있으며 대사의 문집인 편양집의 서문을 동주 이민구(東洲 李敏求)가 쓰고 있다. 이런 점만 미루어 보아도 그가 생전에 교류했던 인물들은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유학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위 시에서 최생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어로 보아 유가로서 인정될 만한 선비였음은 짐작이 간다. 자신은 산 속에 병 들어 있는 한납 중이지만 그대는 조주자로 있었던 한유를 배우는 사람이라 하였으니, 대사 자신이 당시 한유가 매우 가까이 지냈던 태전(太顚)이라는 스님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지향하고 있는 길은 다르지만 그것을 초월한 정신적 사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두 구는 모든 상념을 뛰어넘은 담박한 심정을 고도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서로 처해 있는 거리는 거리의 개념을 뛰넘은 구름길이다. 이 구름의 창에서 한 번 웃는 웃음이다.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무한의 뜻이다. 저 푸른 하늘의 해맑은 달 여기에다 무슨 의미로 덧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두 사람의 거리이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여기와 저기라는 두 거리를 이어 주고 있는 실상이다. 아울러 이것이 가을의 전부이다. 또한 지난 날이나 앞으로의 시간을 영원히 잇는 가을의 모습이자 두 사람을 이어 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여시아문' 불서전문서점 자리매김

개점 1년…3만권 보유·통신판매 '호응'

최초의 불서전문서점 '여시아문(如是我聞 737-0695)'이 지난달 23일로 개점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여시아문은 5천여종 3만권의 장서를 보유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서는 물론 사상·철학 등 불교관련서적을 전시·판매하는 최대의 매장으로 성장했다. 이와함께 컴퓨터 검색기능을 갖춰 저자 또는 출판사 등 불서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갖고도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 실시 매월 불서 정보지 '여시아문' 발행등 독자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

선우도량 7호 배포 수련결사 지상중계

이번호에는 지난 3월 진행된 '교단의 미래와 결사운동' 주제의 제8회 수련결사 발제문과 논평 토론내용을 비롯 3.29법난, 4.10 승려대회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지상중계했다.

논단으로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전망과 불교의 과제'(현응·선우도량 사무처장)를, 시론은 '사찰소장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제언'(박도화·동대박물관 연구원)을 실었다.

선우도량 대표선우 도법스님은 권두언을 통해 한국불교 승단의 제명제는 △대비원력의 문제의식 확립 △출가정신의 생활화 △불교세계관에 입각한 신념 구축이라고 밝히고 결사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엄변상도 전80장 민족사 영인본 보급

민족사는 해인사 장경각소장 화엄변상도 전80장으로 액자나 족자 병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인본으로 펴내 보급하고 있다. 화엄변상도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대승불교의 장엄한 세계관을 설한 화엄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완본은 우리나라에만 전해지고 있다. 허설집은 해인사 율원장 종진스님이 집필했다.

"일연스님 뛰어난 시인이었다"

高大 고경식교수, 삼국유사 '讚' 연구 논문발표

일연(一然)이 지은 〈삼국유사〉에는 49수의 찬(讚·어떤 글귀에 대한 제자의 찬미)이 실려 있다. 이중 2수는 인용된 것이고 나머지 47수는 일연이 직접 지은 것이다.

이들 47수의 찬을 중심으로 일연의 불교관과 문학성을 밝힌 논문이 나왔다. 논문은 고려대 고경식교수가 최근 내놓은 〈고려시대 한문학연구(1)〉(집문당刊)에 실렸다.

고교수는 〈삼국유사〉에 남긴 찬들을 통해 △일연은 뛰어난 시인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민족적 자존심의 고양을 위해 유사에 승려로서의 호국불교사상, 역사적 찬술자로서의 민족원형의 구현의식, 불국토사상 등을 깊분 녹여넣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생교화를 목적으로 신이성, 불국토사상, 재래신앙을 두루 수용했으며 △그의 불교관과 민족의식은 '유사'의 기사 선별에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 47수의 찬을 통해 보다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만해 詩 서정 주체는 여성이미지"

조성면씨, '한용운 재론'서 아버지 상실등 제시

"'님의 침묵'에 나타난 여성주의적 경향은 만해스님의 일관된 의인·걸사(傑士)적 삶의 지향, 가문에 대한 은폐심리(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 국가의 상실과 3·1운동의 실패 같은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다."

조성면씨(인하대 국문과 박사과정)가 〈민족문학사 연구〉 제7집에 발표한 '한용운재론: 아버지 지우기와 비극적 세계관'은 한용운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스님의 여성주의와 불교사회주의를 집중 조명했다.

조씨는 "만해의 시에서는 갑자기 사라진 아버지, 즉 남성이 사라져 버리고 주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버림받은 여성이 서정주체로서 등장한다"며 이는 "아버지 세계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

즉 스님의 실제 아버지는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입신양명을 꿈꿨고, '상징적인 아버지(조국)'는 외세에 의해 무기력하게 짓밟혔다는 의미이다.

조씨는 "만해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은 출가 이전시기에 대한 정확한 작가연보의 작성문제, 특히 만해의 출신과 가문 그리고 아버지 한응준(韓應俊)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니사경화 1백8점 전시

채원식 세예전 …1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한국서화가협회전 및 한국전통 예술대전, 한국문화대예술제 등에서의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진 서예가 오당 채원식의 '금니사경화전'이 오는 1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오당 채원식의 회갑자축 사경전으로 채씨의 묵연의 30여년을 검증하는 적색 청색 흑색의 명주위에 순금가루로 경전, 고문, 명구, 불화등을 그린 금니사경 총 1백8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김영동 나의 소리기행' 국악·현대악기 앙상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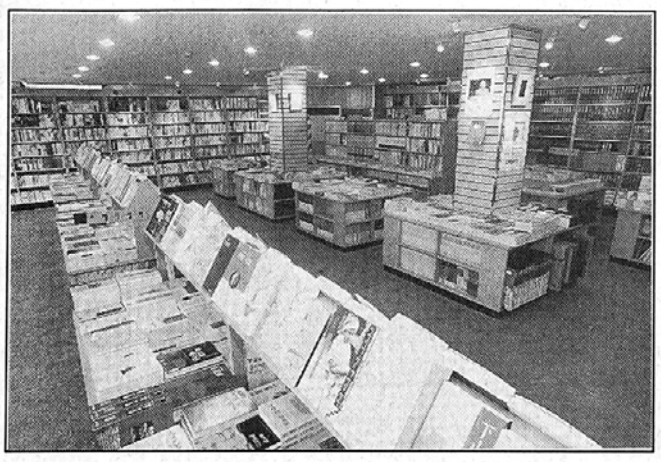
김영동의 음악세계를 엿볼 수 있는 '나의 소리기행'이 오는 14·15일 오후 7시30분 정동극장에서 공연된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 김영동씨는 초원, 먼길, 방황, 어디로 갈거나, 조각배 노래 등을 연주한다.

불은가득, 법향가득

개점 1주년

책방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개점 1주년,

길 찾는 이의 도반, 책방 여시아문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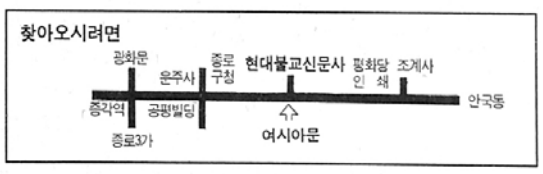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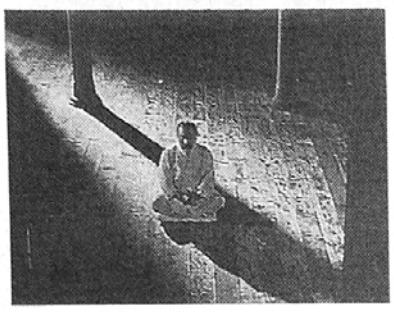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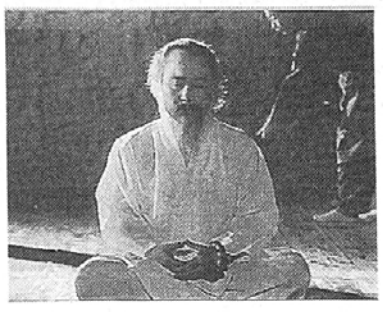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싣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려면





◇ 염주알로 살생하는 장면이 묘사된 삼성전자의 '잠잠' 광고의 주요장면.

'염주알로 살생' 청소기 광고 교계 '아연실색'…항의 빗발

염주알로 파리를 죽이는 장면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광고 내용으로 묘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광고는 삼성전자의 왕발이 청소기 잠잠 '수도승' 편.

조용히 명상에 잠긴 수행자가 넙당인 듯한 선방에서 좌선을 하고 있다. 그뒤로 승복바지를 입은 여인이 청소기로 선방을 청소하는 장면이 비춰지고 '윙~' 하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순간 수행자가 손에 끼고 있던 염주알을 날려 여인뒤에서 댐돌던 파리를 잡는다. 그러자 소음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결국 소음을 낸 것은 청소기가 아니라 염주알에 맞아 떨어진 파리였다는 것.

그 만큼 청소기의 소음이 적다는 것을 강조한 이 광고는 불살생계를 다름아닌 염주로 '파계' 시키는 아연실색을 범하고 있다.

제일기획이 제작한 이 광고는 95 크레스타 인터내셔널 광고제에서 본상을 수상해 더욱 불살생계를 무색케 한다.

8월15일 캐치원(CATV)방송에 3번의 시험방송이 나가고 신문지상에 광고 내용이 언급되면서 벌써부터 스님들과 불자들로부터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광고내용을 우연한 기회에 케이블TV를 통해 광고를 봤다는 마포 박보련화보살은 "자비문중인 불교의 도량에서 수행자가 살생하는 것을 모델로 청소기가 저소음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한 종교의 기본가르침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광고의 소재로 삼았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다른 불자는 "보시와 자비를 강조하는 불교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장면들만을 묘사, 자사 제품을 최고로 선전한 것은 기업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고 격분했다.

이 광고를 제작한 제일기획의 관계자는 "특정종교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면서 "제품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교의 정숙한 분위기를 묘사하면서 코믹성을 가미했을 뿐"이라고 변명.

도필선 기자

채널32 불교TV 개국 6개월

"안방포교 가능성 보였다"

'자비의 천수천안' '퀴즈특급…' 신심나는 프로 시청율 상위권…청소년 프로 편성 아쉬움 보여

"불교TV를 통해 저희 가족은 불자다운 생활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어요. 특히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게 하는 '자비의 천수천안'을 자주 보고 연예인 불자들의 이야기도 '김병조의 스타쇼'를 통해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신행상담'이나 '퀴즈특급 이뭐꼬'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프로여서 매번 시청을 합니다."

불교TV의 개국이후 6개월간 Ch32를 '신행의 동반자'로 삼아 왔다는 노원구 하계동에 사는 지혜장보살의 얘기다. 지난 6개월간 불교TV를 시청한 불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불심 가득한 내용에 최고의 점수를 주고 싶다고 입을 모은다. 안방에 부처님을 모신다는 일념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곳이면 밤잠을 자지 않고 달려갔던 제작진들도 "이제 자신감이 생긴다"며 "불교TV만의 '맛'을 살리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한다.

방송 6개월을 넘기며 불교TV는 주간 방송시간을 3시간 30분 연장하고 부산에 편집기와 촬영장비를 배치해 지사를 설립 각종 영상사업을 활발히 펼치는 등 새로운 활기를 찾고 있다. 불교TV의 '활기'는 전국 산사의 스님들과 불자들의 호응과 전체가입인구 37만 돌파 등 유선종합방송의 전반적인 방송환경 호조에 힘입고 있다.

불교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수도 점차 늘어나 상위권의 시청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편성측면에서는 보다 현장감있는 제작과 포맷의 다양화 어린이 청소년 프로의 강화등이 필요하다는게 시청자들의 모니터 평가다. 6개월간 부장급 사원 2명을 비롯 제작국에서만 8명의 경력직 전문인력이 빠져나가는 등 10%의 이직율을 보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리방송모니터회의 김재일 회장은 "불교TV가 불자들의 신행을 이끌며 포교사역함을 충분히 할 수 있음이 확인된 6개월이었다"며 "보다 전문성을 살리고 불교만의 장점을 살려 나갈때 다원적인 방송환경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원우 기자

저소득 150가구에 '자비 손길'

태고종 해원사, 쌀·라면등 전달

태고종 해원사(주지 종운스님)는 중추절을 앞둔 지난 6일 관내 저소득주민 1백50가구에 각각 백미 20kg과 라면 1박스를 전달했다.

"추석은 이웃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이웃돕기법회에는 박서봉 태고종총무원장, 진영호 성북구청장, 신도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에서 주지 종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각박해가는 이웃에게 본래 성품을 찾아주기 위해 법회를 마련했다"며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태종 하안거 해제식

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은 지난 3일 총본산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하안거 해제식을 성황리에 봉행했다.

지난달 3일부터 한달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하안거에는 총1천4백여명이 안거를 이수했다. 이날 총무원장 전운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안거수행의 공덕으로 신, 구, 의 3업을 청정하게 하고 종단의 교세확장과 종풍진작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고종 소양시험 실시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스님)은 제19회 합동득도수계산림이 11월6일부터 20일까지로 선암사에서 실시됨에 따라 지난 1일 총무원 설법전에서 사전 소양시험을 실시했다.

전국 각 말사에서 1백20명의 행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행자소양시험은 독경, 예절, 불교의 이해수준 등으로 치뤄졌다.

한편 총무원측은 "이번 행자소양시험에서 합격한 행자에 한해서 수계식에 참석시킬 예정이며 행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자는 동방불교대학에서 일정기간 재교육을 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佛放 이사회 성원미달 유회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불교방송 이사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됐다.

불교방송이사회는 이날 △지방국설립 및 운영규칙 개정 △사장직무대행의 건 △재단감사 보고 등을 안건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사 19명중 8명만 참가해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추후 일정을 잡아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지난해 3월 상무대 비리로 구속 수감됐다가 지난달 11일 사면된 조기현 전국신도회장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조회장은 이날 이사회 유회에 따른 간담회에서 이사들에게 "교계에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전국신도회와 관련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tn 새 프로-우리도 부처님 같이

불심깊은 이웃들의 이야기 다큐 편성

가을프로개편과 함께 9일 첫 선을 보인 휴먼다큐멘터리 '우리도 부처님같이'(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0분~11시10분)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에 방송된 '어느 도편수의 일기'는 전국의 사찰을 돌며 문화재를 보수하는 문화재 수리기능보유자 김상식씨(사진)의 삶을 통해 불심으로 아로새긴 삶이 소개되어 감동을 주었다.

16일에는 귀순한 불자유도선수 이창수씨(한국마사회 코치)의 잔잔한 삶을 소개한다. 이창수씨는 북한대표로 있을때 만난 현재 부인인 대만유도선수에게 불상이 달린 목걸이를 선물받고 불교에 귀의 한다. 귀순하여 월운스님과 전생의 인연으로 만나게 된 사연과 북한의 부모님을 얘기한다.

담당PD 장동호씨는 "부처님의 정신을 펴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나가고 싶다"는 각오를 피력.

목탁소리

이 경 숙 〈취재1부 차장〉

설악산 세계유산지정 반대라니…

최근 경주지역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 노선 변경시비가 재연되는 가운데 설악산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져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문화재 관리국이 오는 10월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에 설악산을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지정해 주도록 정식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원도와 속초시 등 지역주민들이 "관광자원을 사장시키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해 결국 '없던 일'로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금수강산이라고 자랑하는 이 산하를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의문이다.

6.27 지자체선거 후 각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이 잇따라 허가돼 환경훼손 및 문화유적 파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천혜의 자연이 남아 있는 강원도는 각종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천연림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다. 그런데 강원도는 지금 백암산과 광덕산 사이 수십만평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대룡산 수리봉 일대에 대규모 공원조성사업이 추진중이며 고성군에는 골프장 건설이 허가됐다.

또 4년전부터 설악산에 모노레일 설치도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서로 앞다투는 개발이 추진되다면 몇년도 안돼 강원도의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이변-홍수, 가뭄, 이상고온, 태풍과다-이 속출하고 있다.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환경파괴로 인한 연쇄현상 때문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무수한 역사유적들이 산재하고 있는 천년 고도에 시속 2백Km이상의 고속전철을 제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역민들이 시위하고, 설악산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보호하기위해 등록하자는 제안을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지역을 위하고 나아가 한국을 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또 묻고 싶다.

"당대만 잘 살면 되는가"라고.

스리랑카 사회복지 공로 '일가상' 수상 아리아나트니 박사

유아원 7백여곳 설립 '교육 헌신'

지난 2일 스리랑카 사회복지에 애쓴 공로로 제5회 일가상을 수상한 아리아나트니 박사(64,스리랑카)는 모국에서 '모두다 깨우치고 함께 나누는 운동'을 통해 사회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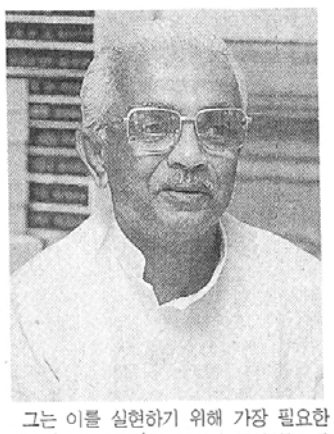
35년여를 가난과 범죄, 폭력에 맞서며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해온 아리아나트니 박사는 1만여 마을을 돌며 의식개혁운동과 부처님 말씀을 전해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백여개의 유아원도 세우고 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이외에도 환경개선과 국민정신을 계도하는데 앞장서온 아리아나트니 박사는 그에 가장 효율적인 사상으로 불교를 손꼽았다.

"부처님께서도 잘사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단지 옳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고 그것을 잘 이용해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부처님 뜻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격도야를 시작으로 가족, 마을 도시, 국가, 세계를 깨우치자는 6단계에 정신, 도덕, 문화, 사회, 경제, 정치의 여섯방면으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아리아나트니 박사.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끊임없는 실천이라고 말했다. 〈우〉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다!
'그대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우는 인생의 큰 스승
오쇼 라즈니쉬! 그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 탁월한 삶의 인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운다.
어떠한 집착도 번민도 없는 무상도의 세계, 구름 너머 저멀리, 깨달음의 밥으로 인도하려는 그의 노력이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432면 값 7,000원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갑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한다.

오쇼 라즈니쉬! 그는 잡초가 무성한 법구경이라는 밭을 완전히 갈아 엎는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그의 법구경 강의를 통해 고타마 붓다의 시대로 들어간다. 스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언어, 방금 건져올린 팔고기처럼 생동감 넘치는 삶의 지혜, 그 무한정의 감동이 우리를 압도한다.

법구경 (上)(下)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값 6,500원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112 가지 명상비법 무삭제 완역공개
인생을 무덤덤하게 살 것인가? 황홀하게 살 것인가?
꼭마른 영혼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고민이 없이 삶에의 무지와 무관심, 무감각에 빠져 버린 메마른 의식과 안일한 삶의 대도에서 이젠 깨어나십시오!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완역본!

탄트라 비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들을 모른다면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차원 높은 지적 유희가 바로 선(禪)입니다.
이 존재들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범입성(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남은 몸뚱어리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져다 그 몸에 붙여줄 것이다.

마 MATZU 조
조 JOSHU 주
임 RINZAI 제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각권 값 5,000원

태이초판사 랜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36

'국제선우' 결성 불교국 지원

'우리는 선우' 앞장…캄보디아·미얀마 승단교육 후원

재가신행단체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가 (가칭)국제선우(회장 정승연)를 결성하고 불교국가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부터 해외포교를 추진해온 우리는 선우는 전쟁과 경제난후로 불교중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국가의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실천계획을 전담할 부서로 최근에 국제선우를 결성하고 사업에 들어간 것이다.

국제선우는 첫사업으로 지난 4일 주한 미얀마대사관에서 싸사나불교대학에 기부금 1천달러와 문구류를 전달하고 매월 1천달러씩 승려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국제선우 회원 6명과 미얀마대사관 직원들이 참석했다.

미얀마 종교성장관을 대신하여 기부금을 전달받은 대사부인 쥬쥬 흘라잉씨는 "이 선행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현재나 미래에서나 훌륭한 지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한국불자들의 미얀마 승단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미얀마 싸사나불교대학은 승려종합대학으로 5백여명의 스님들이 재학하고 있으나 교재와 문구류가 절대부족해 학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제선우의 미얀마 불교대학원은 우리는 선우가 괄처온 캄보디아 승단지원에 이은 두번째 불교국가 지원사업.

우리는 선우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캄보디아 승단교육을 위해 매월 1천달러를 종교성장관 탭봉스님(승정)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2차례에 걸친 캄보디아 현지방문을 통해 캄퐁고아원 현지에 지하수 개발, 전기시설 설치, 가축사육지원 등 전쟁 난민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이같은 우리는 선우의 불교국가지원사업에 대해 남지심대표는 "각 나라의 불교도들이 서로 울타리가 되어 주지 않으면 세계속에서 불교를 중흥시키는 일은 요원하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동남아 불교국가에서는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선우는 화랑선우(육사포교), 선재선우(청소년포교)에 이은 세번째 우리는 선우 산하기구로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국제선우는 캄보디아, 미얀마 이외에도 몽골, 티벳 등의 불교국가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라고 있다.

〈이준엽 기자〉



◇우리는 선우 남지심대표(왼쪽)가 지난 4일 미얀마대사 부인 쥬쥬 흘라잉씨(오른쪽)에게 싸사나불교대학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대전 자광사 대법당 완공

탄허재단 10년만에…인재양성 노력

대전 자광사가 불사 10년만에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자광사(주지 원행스님)는 지난달 31일 신축불사를 완공, 스님과 신도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유성구 학하동에 자리한 자광사는 (재)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전창열)이 탄허스님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86년 3월 신축불사를 추진, 착공 10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연건평 3백20여평 규모의 3층건물에 대웅전, 보광전, 적광전 등이 마련된 이번 불사에는 총공사비 21억7천여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1층 대웅전과 2층 보광전, 3층 적광전에는 석가모니불, 노사나불, 비로자나불이 각각 모셔졌다.

주지 원행스님은 "탄허스님은 민족의 통일과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화엄사상이라고 하셨다"며 "10년을 들여 불사를 한만큼 자광사가 화엄진리를 체득하는 인재양성의 도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자광사는 중부지역 불법포교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제막식에는 비룡스님(월정사 조실), 이청봉스님(대전사암연 회장)을 비롯, 홍선기 대전시장 등 각급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 준공을 축하했다.

결식노인급식소 '관음의 집' 개원

자원봉사연 오는 29일…강동구 길동에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오는 29일 결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관음의 집'(강동구 길동 364-4 만종빌딩 지하 1층)을 개원한다.

무료급식소 관음의 집은 안보현성보살이 강동구 길동 소재 만종빌딩의 지하 76평규모 1층 공간을 기증함으로써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서 그 운영과 관리를 맡게됐다.

개원에 앞서 관음의 집은 이미 지난달 16일 부터 매주 화·수·목요일 점심급식을 실시, 현재 5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관음의 집은 앞으로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결식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한편 관음의 집은 매월 네째주 수요일에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이·미용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사랑 나눔의 밤' 행사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석화전시회 개최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태현)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아남프라자에서 석화전시회를 연데 이어 31일 이를 축하하는 '참사랑, 나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복지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이 만든 석화 60여점과 봉사활동모습을 담은 사진 30여점이 전시됐다.

또한 결손가족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나눔의 밤에서는 봉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례발표와 창작 발표회가 열렸다.

청동금형틀 추가 발견

화엄사서…통일신라 판불기법 연구자료

구례 화엄사 5층석탑에서 다량의 소조불을 찍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금형틀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달 25일부터 구례군이 실시한 2차 발굴조사에서 윗층 기단석내 적심부 해체과정에서 청동금형틀을 비롯, 금동제 방울, 수정, 철·목제 소탑, 철제 장신류, 숟가락 등 총 42점의 유물이 수습됐다.

이중 청동금형틀은 앞면에 음각된 좌불상과 배면에 고리형태의 손잡이가 달린 가로 6.8㎝, 세로 6.4㎝ 크기로 8세기 중엽 통일신라 판불기법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중 노동자 한마당

석왕사 청년회 지난 3일

석왕사 청년회(회장 이승락)는 지난 3일 "제10회 백중맞이 노동자 문화 한마당"을 석왕사 육화전 앞마당에서 개최했다.

부천지역 청년 노동자 및 지역단체·대불청회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청년삶의 문화를 일깨우는 문화경연 한마당으로 마련됐다.

충청지역 사찰 비피해 심각

무량사·마곡사·백운사등 30여곳 훼손

지난달 말 중부지방을 휩쓴 집중호우로 충남도내 무량사등 전통사찰을 비롯한 30여개 중요문화재들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김시습 영정등 보물 3점이 보관된 부여 무량사는 일주문 지붕, 도솔암 법당 지붕, 칠성각, 요사채 지붕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공주에서는 영규대사 묘소의 봉분 및 경사지 2백m가 비에 떠내려 가고 마곡사 경내도로와 진입로 90m가 유실됐으며, 홍성군 결성면 한용운스님 생가의 담장이 5m 가량 금이 갔다.

또한 보령시 백운사도 대웅전 극락전과 요사채가 붕괴되는 수난을 겪었다.

이밖에 부여 능산리 고분군(사적 14호) 동하총 봉토 50여기가 유실되고 화엄사원등 각종 문화재들이 훼손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집계된 문화재 피해는 34건 16억원에 이른다"며 "빠른 시일내에 복구작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해인골프장 백지화 재촉구

건설저지공동대책위

문체부의 사업계획 취소결정으로 진정국면을 맞았던 해인사골프장 건설문제가 (주)가야개발의 취소재결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또다시 말썽을 빚고 있다.

가야개발은 지난달 24일 취소재결처분은 법령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며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미 상당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가야개발이 계속해서 사업계획이행을 고집할 것으로 보여 해인사골프장 문제는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가야개발측에 건설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사찰 종토세 적용 부당하다"

통도사 말사 주지연수서 '대선공약 이행' 촉구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통도사 말사암 주지연수회에서 참석 스님들은 '토지투기와 재벌들의 과다 토지보유를 막기위해 시행된 종합토지세법의 사찰적용은 부당하다'며 즉각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스님들은 "분화재의 80% 이상이 불교문화재임에도 지난 대선 당시 김대통령의 사찰재산에 대한 종토세 면제공약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아 불교재산이 압류, 강제경매 처분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토지실명제에서 사찰명의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울산 동축사등 지역사찰이 종토세와 관련 당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사찰재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시비가 계속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일보 연재소설 불교비하 내용 '물의'

경기일보 장편 연재소설인 〈바람과 숲〉(김현탁 작)에 불교를 비하하는 내용이 다뤄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에 따르면 최근 경기일보의 연재소설에서 "비구니스님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그림과 함께 독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등 스님을 노리개로 등장시키고 있다"며 "경기일보측에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포교행정 활성화 결의

조계종 포교국장 연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지난달 28, 29일 양일간 화성 신흥사에서 제2차 포교국장단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 16명이 참석 △포교국 활성화 △포교국장 임기보장 △연수원 건립 △사찰을 수련시설로 개방토록 하는 등 6개항에 걸친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부처님 점안식 봉행

국립의료원 간호전문대 불교학생회(회장 안윤경 2년)는 지난 5일 동아리방에서 2학기 개강법회 및 석가모니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환경문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14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현대 과학사상의 흐름과 환경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종덕 환경과 자연철학연구소장과 장회익교수(서울대)가 각각 '과학사상과 환경운동의 이념' '생명문제의 문명사적 의의'로 주제발제를 하며, 김명자(숙명여대교수) 문순홍(생태사회연구소) 차명제(시민환경연구소) 황태연(동국대)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승가대 장학금 20% 증액

중앙승가대(학장 송산스님)는 지난 22일 2학기 장학금을 지난 학기 지급된 장학금보다 약 20% 증액하고, 장학금 수혜자를 확정 발표했다.

장학금 수혜자는 중복대상자 7명을 포함 81명으로 총 8천2백83만2천6백원이 지급된다.

개혁불사 유공자 포상

지난해 개혁회의 기간동안 조계종 개혁불사에 전력했던 승·재가 단체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총무원 청사 1층에서 거행된다. 이번 표창대상은 다음과 같다.

△동국대 석림동문회, 선우도량, 중앙승가대 동문회, 동국대 동림동문회, 실천불교승가회, 전승련, 중앙승가대 학생회, 동국대 석림회, 우리는 선우, 능인선원·석왕사·구룡사 신도회 (이상 단체) △도각스님(개인).

29일 '부산 선우모임' 결성

부산지역 불교 제단체 실무자들의 모임인 21세기를 위한 선우모임(발기준비위원장 이기표)이 창립된다.

21세기를 위한 선우모임은 오는 15일 불교연합회 강당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29일 코모도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16일 대불청 이사회의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이상번) 제5차 이사회의가 오는 16일 오후 8시 만해교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96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승인 및 대불청 사단법인 추진위원회 결성에 따른 의견을 나눈다.

김순복보살 장기 기증

지난 3일 교통사고로 입적한 월정사 말사 정암사 주지 혜종스님의 장례가 지난 5일 월정사에서 다비장으로 치뤄졌다.

한편 같은 날 입적한 정암사 신도 김순복(39세)씨가 사망전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 지난 4일 장기이식 시술이 있었다.



불교 성지 순례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출 발 : 9월 19일, 10월 17일
· 동참금 : 295만원
· 일 정 :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돈황-투르판-우룸치-카슈가르-쿤자랍고개-훈자-길기트-스왓-페샤와르-탁실라-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출 발 : 9월 22일, 10월 13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네팔 9일
· 출 발 : 9월 30일, 10월 21일
· 동참금 : 210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인도·네팔 성지 순례 10일
-불교 7대 성지와 네팔의 불교사원 순례-
· 출 발 : 9월 27일, 10월 26일
· 동참금 : 160만원
· 일 정 : 서울-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녹야원)-부다가야-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얌부넛 등)-서울

황산·구화산 6일
-지장보살도량 구화산 순례-
· 출 발 : 9월 28일, 10월 26일
· 동참금 : 95만원
· 일 정 : 서울-상해-황산-구화산-상해-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출 발 : 9월 16일, 9월 30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 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9월 17일, 10월 15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페이-
· 출 발 : 9월 20일, 10월 25일
· 동참금 : 65만원

■ 여행조건 ●호텔: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사람살이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구속과 아름다움 함께 지닌 인생표현

생활의 리듬을 지키다가 깨는 것은 일상에서 변화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삶의 활력이 된다.

사람들은 짜여진 일상에 지루함을 느낄때면 여행을 떠나곤 한다. 그 여행은 일상을 개뜨리지만 일상에 더 큰 힘을 가져다 준다.

우리네 삶은 무엇인가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것을 '살이'라 표현하고 싶다. 머슴살이, 살림살이, 시집살이, 더부살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구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는 시각 언어인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살이'는 구속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사람살이를 잊고 사는 우리네 삶이 그렇다. 우주 만물 중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그 영장으로서 구속되어 사는 것을 쉽사리 잊어버리는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운가? 내 삶 또한 그렇다.

내가 생활하는 곳은 장안산 골짜기 장수라는 곳으로 작고 조용한 산골이다. 내 어린 시절의 향기를 담고 있는 고향이기도 하다. 매일 접하는 산과 들 그리고 그 자연 속에 일개미의 숙명적인 몸짓같이, 주어진 것에 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망막을 가득 메우고 화면을 대할 때마다 새롭게 떠오르곤 한다.

철학에 너무 깊게 빠지거나 서구문화에 너무 흠뻑 젖어 나를 잊고 우리를 잊는 그런 그림은 막연하기에, 스스로 체험한 이야기를 화폭에 그대로 옮기고 싶을 뿐이다.

오늘 하루도 반복되는 삶 속에서 미련은 있겠지만 성심히 내일을 준비하는 아름다움을 갖고자 힘을 다해 보고 싶다. 화면을 대할 때마다 더욱 새로와지고 싶은 욕심에 막연해 보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행복감에 젖고는 한다.

다시금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함이, 마치 깊은 산사 독탁을 두드리며 앉은 노승의 마음을 약간은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영문 〈서양화가〉

작지만 큰 행복 ㊦

주부신행담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일들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다. 그건 아마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겪어야 하는 짐을 덜기 위해 인간이 받은 축복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지만 아무리 살아도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 있다. 바로 그 기억이 한사람의 생각과 환경을 바꾸기도 한다.

2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채 실의에 빠진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건축공무원이었던 남편은 항상 자신의 일에 대해 만족해하지 못했다. 비합리적이고 부정한 관행에 대한 회의감이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벌였지만 경험이 없었던 터에 사기마저 당해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 버렸다.

그렇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 실의에 빠진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조차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가난은 그래도 참아낼 수 있지만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참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만이 생활속에 떼어버린 비참한 나날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내 심정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었다.

절부터 그저 불교가 좋아 절에 다니며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왔던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게 되었다. 의지한다고 해봐야 그저 마음속으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것뿐이었지만 시간나는대로 경전을 염송했다. 아니 불교는 이미 내 생활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당시 나는 어김없이 새벽 3시에 일어나 목욕을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근 공장엘 다닌지 몇개월이 지났지만 공장에 가기전에 한군데 꼭 다녀오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명대 사거리에 있는 대승원. 도착하면 새벽4시쯤. 나는 법당에 들어가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빌고 빌었다. 남편과 3남매 모두 건강하고 구김살없이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과가 끝난 저녁에는 금강경 강의를 듣기 위해 대승원엘 찾았다. 내가 부처님께 무엇인가 바라는 것처럼 나도 부처님의 말씀을 좇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고 싶어서였다.

밥먹을 때나 청소할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잠잘 때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구절을 염송했다.

그러던 어느날, 이날도 역시 새벽예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평상시보다 조금 늦은 탓에 아이들 아침이 늦을까봐 서두르며 돌아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바삐 서두르다 그만 아스팔트 빙판길에 미끄러지고 말았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내 몸은 마침 출발하려는 시내버스 바퀴 밑쪽으로 미끄러졌고 주위 사람들은 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는 조그만 외상 하나 없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 분명히 바퀴밑에 들어가서 치었는데도 나는 멀쩡한 것이었다. 급정거를 한채 버스에서 뛰어내린 운전사 아저씨가 오히려 더 놀란 듯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정신없이 집에 돌아왔다. 아직도 곤히 잠들어 있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괜시리 눈물이 흘렀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내가 죽거나 다쳐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크지는 않지만 내 정성을 부처님께서 알아주신 것은 아닐까. 왜그런지 꼭 그럴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바삐 서두르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내 몸은 마침 출발하려는
시내버스 바퀴밑으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절에 다니곤 했었다. 물론 그때야 무슨 신심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그저 부모님을 따라다닌 것에 불과했었다.

고등학교 2학년때 쯤으로 기억하는데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 몰래 아버지 자전거를 훔쳐타고 길에 나왔다가 트럭과 부딪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자전거는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지만 나는 부분적인 찰과상만 입었을 뿐 특별히 다친 곳은 없었다. 온이 좋았다고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트럭과 사람이 부딪혔는데 멀쩡할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돌봐주신 은덕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이 영명화 〈대구시 중구 삼덕동〉

♦ These(Pleasures are) to me calamities, boils, misfortunes, diseases, sharp pains, and dangers ; seeing this danger(originating) in sensual pleasures,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이런 감각적 즐거움은 나에게 있어 재앙이며, 불행이며, 병이며, 극심한 고통이며, 하나의 위험이다. 이 모든 욕망의 대상에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Both cold and heat, hunger and thirst, wind and a burning sun, and gad-flies and snakes - having overcome all these things,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바람과 태양의 열기, 모기떼와 독사들, 이런 것들을 능히 참고 견디며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As the elephant, the strong, the spotted, the large, after leaving the herd walks at pleasure in the forest, even so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힘센 얼룩코끼리가 무리를 떠나 숲속에서 한가로이 노닐듯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⑩

♦ For him who delights in intercourse (with others, even) that is inconvenient which tends to temporary deliverance ; reflecting on the words of (Buddha) the kinsman of the Adikka family,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모임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잠시도 영혼의 휴식에 이를 겨를이 없다. 태양의 후예(부처)가 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adikka 태, 태양 (빠알리어)
*kinsman 남자친척
*gad-fly (마소에 피는)쇠파리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제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 리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배로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경기 과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0348-945-2233 / 팩스:0348-945-9607

"패션 자동차 시트카바"

ALT-X AUTO DRESSING SHOP



인천연수점 (032)812-9553

■ 체인점 모집

• 모집조건
정수 20평이상 소유하고 계신분
기타 - 주유소, 대형카인테리어, 백화점 등 문의 바랍니다

• 체인사업부
TEL (032)812-9304-6
담당자 차장 이병우

■ ALT-X체인점

인천연수점	(032)812-9553
서울강남점	(02)556-4468
서울북부점	(02)9923640
서울구로점	(02)808-3441
의정부점	(0351)872-2192
안양점	(0343)53-9263.4
수원점	(0331)38-8280.1
대구서부점	(053)654-6204
대전서구점	(042)633-7071
전주점	(0652)74-0072
광주북구점	(062)524-4255
제주점	(064)58-2660.1

■ 사원모집

• 모집분야
1. 카피라이터
2.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3. 편집 디자이너
(각항 2년제 졸업이상자)

• 홍보부
TEL (032)816-7053
담당자 부장 정명창

Aquam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8-7 67블럭 8호지
TEL (032)819-8801~4 FAX (032)819-8948